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박사학위 논문

말더듬경험에 대한 근거이론분석:
말더듬성인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최 소 영

말더듬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말더듬성인을 중심으로

A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Stuttering
Experience: Focusing on Adults Who Stutter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최 소 영

말더듬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말더듬성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신 문 자

이 논문을 언어병리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최 소 영

최소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부자 
위원	세한대학교 교수	송미승 
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경재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희정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신문자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4
C. 용어정의	5
1. 말더듬성인	5
2. 근거이론	5
II . 이론적 배경	6
A. 말더듬	6
B.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과 내재적 특성	8
1.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	8
2.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	9
C. 말더듬성인에 대한 질적연구	12
1. 질적연구의 목적과 유용성	12
2. 말더듬성인 관련 질적연구	14
III .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18
A. 근거이론	18
1. 근거이론의 배경 및 정의	18

- 2. 근거이론의 분석과정 19
- B. 연구설계 23
 - 1.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23
 - 2. 연구자의 준비 25
 - 3. 자료수집 26
 - 4. 연구의 흐름도 27
 - 5. 연구의 평가 28

- IV. 연구결과 30
 - A.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개념 범주화 30
 - B.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32
 - 1. 인과적 조건 33
 - 2. 맥락 33
 - 3. 중심현상 35
 - 4. 중재 상황 37
 - 5. 작용 · 상호작용 전략 39
 - 6. 결과 40
 - C. 핵심범주 42
 - D.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가설적 관계 진술과 유형
분석 43
 - 1. 가설적 관계 진술 43
 - 2. 유형 분석 45
 - E.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과정 분석 54
 - 1. 발현기 55

2. 내재화기	56
3. 전환기	56
F. 실체이론 형성	57
V. 논의 및 결론	59
A.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와의 동행’의 의미	59
B.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와의 동행’의 유형	64
C. 임상적 의의	66
D.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68
참고문헌	70
부록	81

표 목 차

<표-1> 연구 참여자의 특성	24
<표-2>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 범주	30

그림 목 차

<그림-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22
<그림-2> 연구의 흐름도	27
<그림-3>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 패러다임 모형	42
<그림-4> ‘통한형’의 패러다임	48
<그림-5> ‘체념형’의 패러다임	51
<그림-6> ‘순응형’의 패러다임	54
<그림-7>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와의 동행’ 이론 모 형	58

부 록 목 차

<부록-1> 증례 기록지	81
<부록-2> 연구참여 동의서	82

ABSTRACT

A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Stuttering Experience: Focusing on Adults Who Stutter

CHOI, SO-YOUNG

Advisor: Prof. Shin, Moon-Ja, Ph. D.

Department of Speech & 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peech language pathologist to use in contributing to the intervention of adults who stutter in the clinical field and community by identifying the life experience of adults who stutter.

This study wa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method suggested by Strauss & Corbin (2001, 2008) and included 10 adults who stutte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to and accepted by all participants,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to September 2017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The methods used in this process were the cellular phone and field notes.

The life experience of adults who stutter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was ‘unconscious occupation of stuttering: yoke’ due to the causal condition of ‘awareness of stuttering’ and ‘object of ridicule’. In the context of ‘tension’, ‘fear’ and ‘withdrawal’, and in the context of ‘preconceived expectations’, ‘passion for accomplishment’ and ‘open mind’, the adults who stutter used strategies of ‘positive advances’, ‘struggle alone’, ‘self-repression’ for core phenomena about life experience of adults who stutter .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self-torment type’,

'adaptive type', and 'giving-up type' according to these actions and interactions.

Through the strategy of 'Struggle alone' and 'self-repression', the participants of self-torment type were tied to the yoke of the unconscious occupation of stuttering and experienced the self-torment and the helplessness. The adaptive participants experienced a life that accepts stuttering as part of their own, using an open strategy for positive responses about stuttering. Those in the giving-up type group mainly responded to passive stuttering by decreasing the number of words. They became insensitive and accustomed to stuttering, eventually abandoning stuttering.

All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undergone stages of occurrence of stuttering, internalization of stuttering and transition of awareness about stuttering. The life experience in adult who stutter was seen as a method of adapting that lived with "unconscious occupation of stuttering: accompanying with yoke".

The intervention of adults who stutter according to the type and process of life experience of the adults who stutter is as follows.

The self-torment type participants tried to overcome the symptoms of stuttering by their own efforts, without seeking expert opinions or searching for speech language therapy. Therefore,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should play a role in recovering trust in speech language therapy. Therefore, speech language pathologist should play a role of recovering trust in speech language therapy by providing positive information about such therapy, giving example of successful cases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e pathologist should encourage self-help groups that are useful in disclosing stuttering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hould act as information providers and cognitive change facilitators in clinical practice.

The giving-up type group used their own method to avoid the situation rather than the positive attitude strategy. As a result, the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could provide them with the benefits of aggressive approach to stuttering. They should be able to help the participants to come out of "unconscious occupation of the stuttering; Yoke" through

information providers and counselors who can actually be relied upon to help them in their treatment.

The Participants of adaptive type had an open mind about stuttering and used positive strategies. However,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treatment of stuttering and stuttering, they used their own method.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should be experts in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eliminating techniques and methods that do not provide complete trea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the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treating the adults who stutter should be able to provide stuttering treatment based on a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client's intervention situation and strategy about the stutter experience.

Second, It i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acticable stuttering intervention and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type of life experience of adults who stutter presented in this study.

Third, It is suggested a follow-up study to verify the consistenc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더듬하면 “서 서 선생님, 음, 선생님” 처럼 말의 시작을 주저하거나 단어를 반복하는 정도를 쉽게 떠올린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사람은 말을 매끄럽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말더듬은 의사소통 장애 중 가장 복잡한 현상이며(Manning, 2001) 정서적, 환경적, 신체적 경험을 포함한 다차원적(Beilby, 2014; Boyle & Blood, 2015; Conture, 1990, 2001; Smith & Weber, 2016; Yaruss & Quesal, 2004) 증후군으로서 오랫동안 신비, 수수께끼, 퍼즐 등 다양한 비유로 설명되어져 왔다(Bluemel, 1957). 이는 말더듬의 원인이나 진행이 다양하며 경험하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heehan(1970)의 빙산 비유는 수면위로 나타나는 말더듬 행동 뿐 만 아니라,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말을 더듬는 당사자의 생각, 감정 그리고 말더듬에 대한 반응이 빙산의 뿌리처럼 크고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Beilby, 2014; Manning, 2010). 이러한 말더듬에 대한 다양한 비유는 말더듬이 복합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진 장애임을 시사한다.

말더듬은 크게 관찰이 가능한 외현적 특성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지 및 감정적인 내재적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이하 WHO, 1977)는 말더듬을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알지만 불수의적이고 반복적인 연장 또는 소리의 멈춤으로 인해 말할 수 없게 되는 말의 리듬장애” 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주로 눈과 귀로 확인 되는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ilverman(1996)은 말더듬의 결과로 생긴 실제적 핸디캡(handicaps)은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말더듬으로 인한 핸디캡은 말을 더듬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적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핸디캡의 문제는 WHO(1980)가 발전시킨 ICDH(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Handicaps)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ICDH에 기초한 말더듬 경험 분류 모델에서는 말더듬을 병 또는 장애 ‘손상(impairments), 장애(disabilities), 핸디캡(handicaps)의 국제 분류’ 관련 수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재적 특성과 연관이 깊다.

2001년 WHO는 기능, 장애, 건강에 대한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이하 ICF)를 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와 장애를 정의내리고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Yaruss와 Quesal(2004, 2006)은 ICF를 말더듬에 적용하여 ‘신체 기능의 손상’을 외현적인 말더듬 행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활동/참여의 제한’은 말더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예: 말하기, 토론하기, 대화하기)이나 관계 형성의 문제, 상호작용의 제한,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의 제한, 사회생활의 제한 등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을 심도 있게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Yairi와 Seery(2011)는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은 감정적 특성, 인지적 특성, 의사소통 태도의 특성 그리고 통제력 상실이라고 하였다. 말더듬성인들은 이러한 내재적 특성을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의사소통과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삶의 양식을 선택하게 된다(Anderson & Felsenfeld, 2003; Corcoran & Stewart, 1998; Crichton-Smith, 2002; Finn, 1996; Plexico, Manning, & Levitt, 2009a, 2009b). 따라서 말더듬성인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 성인들에 비해 사교적인 상황이나 공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한다(Van Riper, 1982). 또한 Michelle과 Eleanor(2004)는 말더듬성인들이 불안정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직장에서의 낮은 과업 수행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말더듬은 삶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며, 그 영향이 삶 속에서의 문제로 변형되기도 한다. 이에 말더듬은 단순히 신체적인 말 산출의 문제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인식에서 오는 반응이므로, 말더듬연구에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Smith, 1999; Yaruss & Quesal, 2004).

많은 연구자들이 말더듬성인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 관심을 두었다. Bricker -Katz, Lincoln과 Cumming(2013)은 말더듬과 직장생활에 대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Plexico, Manning과 DiLollo(2005)는 성공적인 말더듬 관리에 대하여, Plexico 등(2009a, 2009b)은 말더듬에 대한 대처 전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말더듬 관련 삶의 경험, 치료경험, 말더듬 회복 특성(Corcoran & Stewart, 1998; Crichton -Smith, 2002; Daniels, Hagstrom & Gabel, 2006; Stewart & Richardson, 2004)에 관한 것이 있으며, 말더듬 지원 그룹(National Stuttering Association) 참여자를 대상으로 말더듬이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치료나 정보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있다(Hayhow, Cray & Enderby, 2002; Yaruss, Quesal & Murphy, 2002).

국내에서도 말더듬성인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20대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경험(황민지, 2011), 자기 공개에 대한 말더듬성인의 인식(김민혜, 2015)을 알아

보는 연구가 있었다. 국내외 말더듬성인에 대한 질적연구들은 주로 현상학적 방법론의 분석을 통해 성인의 말더듬에 대한 대처 반응, 성공적인 말더듬 치료에 대한 이해, 치료 후 자조그룹 참여 경험 등의 현상에 대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경험의 중심 주제를 밝히는 것에 그쳤고(황민지, 2011), 말더듬의 자기 공개에 대한 전개 과정만을 제시하여(김민혜, 2015)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근거이론 방법론은 질적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문제 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사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변화를 설명해 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김진숙 · 이혁구 · 이근무, 2012). 또한 근거이론 방법론은 연구 참여자의 주된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밝혀서 이론화하는 작업으로(최귀순, 2005), 말더듬성인이 말더듬의 발현기인 발달기에서 부터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과 적응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유형을 밝히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이 되어 있으며, 말더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언어재활사는 말더듬 문제의 중재자로서 말의 유창성을 증진시키고, 비유창성을 일으키는 요소를 감소시키는 등의 중재방법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는 조력자로서 또는 상담가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Gregory(1995)는 “우리는 의사소통장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만큼 이 영역에서 잘 상담할 수는 없다. 상담의 첫 번째 요건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 그룹 아무도 언어재활사만큼 말더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p.198). 그러므로 언어재활사가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 과정, 유형분석을 제시하고 이론을 밝히는 것은 임상적 의의를 고취시키는데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언어재활사가 말더듬성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과 그 경험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풀어나고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다면 중재 시 정보제공자와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경험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수집한 경험적 자료 즉, 그들의 관점에서 서술된 내용을 분석하여 말더듬성

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유형과 과정 분석 그리고 실체이론을 개발하는데 있다.

B. 연구문제

Strauss와 Corbin(1998)은 질적연구에서의 질문은 양적연구 방식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 대한 진술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연구할 현상을 밝혀내는 진술로, 질문의 시작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시작하여 관련 개념들이 드러남에 따라서 점점 그 개념 간 관계를 묻는 구조화된 형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어떻게(how)”와 “만약 ~한다면(if)”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 형식을 갖는다고 하였다 (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개방형 질문은 비구조화 형식을 띄며 참여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동안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참여자의 주도 하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송미승, 2001). 또한 개방형 질문은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에 따라 대답할 여지를 더 많이 주게 된다. 만일 구조화된 질문을 하게 되면 참여자들은 묻는 것에만 대답할 가능성이 크고, 경험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기 어렵다(Strauss & Corbin,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에 대한 초기 반응, 말더듬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느꼈던 경험, 말더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더듬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질문지는 말더듬 관련 임상 경험이 20년 이상인 언어치료학과 교수와 근거이론 연구 경험이 15년 이상인 교수가 감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며 이 연구문제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면담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말더듬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2. 말더듬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3. 자신의 인생에서 말더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4. 만약 말더듬을 겪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달랐을까?
5. 앞으로 말더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C. 용어정의

1. 말더듬성인

말더듬이란 말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끊기거나, 말속도가 불규칙하거나, 말할 때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 2010)이다. 본 연구에서 말더듬성인은 외현적 특성인 반복, 연장, 막힘 등 말더듬의 핵심행동과 이로 인하여 동반되는 탈출, 회피 등의 부수행동을 보이고, 감정 및 인지 등의 말더듬 관련 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의미한다.

2. 근거이론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되었고,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체계화되고 정교화된 질적연구 방법론이다. 이는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실체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을 귀납적으로 이끌어 내어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탐색적 방법의 근거이론은 기존의 이론이나 이미 정의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김형숙, 2007). 또한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하는 목적은 사회 ·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Chenitz & Swanson, 1986). 근거이론 방법은 실제로 수집한 경험적 질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회심리적 문제점, 대처전략, 그리고 과정의 변화 모두를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유용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Stern, 198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하여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말더듬

말이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말은 호흡, 발성, 조음 단계로 이어지는 매우 복잡한 말산출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말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공기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호흡 단계는 폐, 허파, 기도, 갈비뼈, 횡격막과 관련 구조를 사용한다(김수진 · 신지영, 2007). 다음으로 다양한 연골과 근육으로 구성된 후두는 호흡단계에서 만들어진 공기 에너지로 성대를 진동시켜 유성음을 산출한다. 이때 연인두는 비강과 구강을 분리시켜서 공기가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해 빠져나가게 하며 이러한 단계를 발성단계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조음단계에서는 연구개 및 경구개 그리고 근육의 집합체인 혀, 조음기관 중 가장 눈에 띄는 입술이 턱과 함께 운동하면서 모음 및 자음 산출에 관여함으로써 말산출이 이루어진다.

유창한 말이란 이러한 말산출 시스템의 용이성과 자연스러운 정보의 흐름이 특징인 발화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말이 유창하면 청자는 말하는 방식보다 말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말산출이 유창하지 않고 화자에서 청자에게로 정보가 쉽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 말은 비유창하다고 여기기 쉽다. 비유창성이란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말산출 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말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끊기거나 말이 붕괴(breakdown)되며(이승환, 2005), 말을 할 때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간다(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 2010). 말더듬의 핵심행동인 반복, 연장, 막힘 등의 비유창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탈출, 회피 등의 부수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말더듬의 시작 시기는 주로 말과 언어의 발달기로 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이견은 그다지 크지 않다(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그러나 말더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Conture, 2001), 말더듬의 진전 방식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여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Conture, 2001; Guitar, 2014; Manning, 2010).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말더듬의 발달을 다른 질병처럼 일차에서 이차 말더듬으로 다소 선형적인 방식으로 진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Bloodstein, 1960; Bluemel, 1932; Van Riper, 1954). 그러나 상반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차적 말더듬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말더듬이 처음 관찰될 당시부터 복잡하고 심각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Yairi & Ambrose, 1999; Yairi, Ambrose & Niermann, 1993; Yairi &

Seery, 2011). 말더듬을 설명하는 이론과 모델들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는 말더듬의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onture, 2001).

Yairi와 Seery(2011)는 말더듬의 다차원적 특성을 여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의 특성이다. 호흡, 발성, 조음 단계 수준에서 정상적 말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며 음향학적으로 분명한 소리나 음절의 반복, 소리의 연장, 소리의 막힘 등이 동반된다. 두 번째 차원은 신체적 부수행동으로 머리카락에 긴장이 동반된 신체의 움직임은 의미하는데 이는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일어난다. 이 행동은 말더듬 진단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영역이다. 세 번째 차원은 생리적 활성화 차원으로, 말을 더듬을 때 생기는 혈류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피부 반응, 동공 확장, 뇌파 활동 그리고 다른 생리적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차원은 대부분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힘들지만, 문헌에 제시되어 있고,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번째 차원은 감정적 특징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말하기와 관련된 강한 감정적 반응이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며, 심해지면 말하기에 대한 회피를 낳게 되고, 슬픔, 좌절과 같은 감정으로 확장된다. 다섯 번째 차원은 인지적 과정의 차원이다. 말을 더듬는 순간에 대한 자기 인식과 말더듬에 대한 청자의 반응에 대한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차원으로 말더듬 특성을 사회적 역동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말더듬은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말더듬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업 참여, 대화 개시, 전화 통화, 데이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직업 선택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네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으로서 특히, 사회적 역동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더듬으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말더듬성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만성화된 말더듬성인은 의사소통 시 말더듬 특성 중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할 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Craig & Tran, 2006). 여기서 반응은 불안이나 좌절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며, 말을 할 때 예측되는 당황이나 굴욕 등이 동기 부여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측되는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다(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Tran, Blumgart, & Craig, 2011).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은 말더듬성인이 일생동안 말더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감정적 반응은 말더듬으로 인한 학창시절의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Blood & Blood, 2004, 2007; Blood,

Blood, Tramontana, Sylvia, Boyle & Motzko, 2011; Hugh-Jones & Smith, 1999; Langevin, 2015), 취업 시기에 경험하는 낮은 기대치와 실망(Craig & Calver, 1991; Klein & Hood, 2004; McAllister, Collier, & Shepstone, 2012)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말더듬성인은 스스로 매력을 끌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Van Borsel, Brepoels, & De Coene, 2011), 심리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고영옥 · 권도하, 2010; 김주연, 2008; Iverach et al., 2009; Kraaimaat, Vanryckeghem & Dam-Baggen, 2002). 최근에는 만성적 말더듬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Bleek et al., 2012). 이에 말더듬의 평가과정 뿐 아니라, 말더듬 치료 과정에서 말산출에 관련되는 비유창성뿐 아니라 심리 및 감정 등 내재적인 면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Smith와 Weber(2016)도 말더듬 평가와 증재는 반드시 다요인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B.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과 내재적 특성

1.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으로는 반복, 연장, 막힘 등의 비유창성과 같은 핵심행동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비유창성이나 막힘에서 벗어나려는 탈출 행동(escape behavior)과 회피 행동(avoidance behavior)이 있는데 이를 부수행동이라고 한다. 말더듬 평가시, 비유창성의 평균빈도, 유형, 비율, 부수행동의 횟수 등을 일차적으로 조사하는데 이는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심현섭, 2007). 치료 종결 후 말더듬 치료의 성공여부나 말더듬의 재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진전의 지표로 외현적인 말더듬의 특성들을 주로 사용한다.

말더듬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일차적으로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공식적인 치료종결 이후에도 태도와 말더듬 행동의 잔재가 남아있기도 하고, 말더듬의 특성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이는 말더듬 치료 후에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Manning, 2010). 또한 말더듬의 핵심행동이 사라졌어도 본인이 여전히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으로 인한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이 확고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말더듬성인에게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창한 말 또는 비유창한 말은 말더듬을 구성하는 하나의 층에 불과할 뿐이고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에 해당하는 표면구조와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에 해당하는 심층구조 모두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말더듬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은 말더듬의 빈도와 형태만을 평가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표면적 말더듬 행동의 빈도와 그로 인한 삶에서의 핸디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Manning(2010)은 말더듬 행동의 빈도가 말더듬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유일한 척도일 수 없다고 하였다. Emerick(1988)도 치료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와 같은 말더듬에 대한 반응이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핸디캡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말더듬의 중증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특성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 발전하는 감정적인 부분이다(Bloodstein, 1960; 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감정에는 두려움, 근심, 불안, 답답함, 공포, 당황, 수치심, 굴욕, 분함, 모욕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은 말을 더듬는 시점과 관련지어 언급되기도 한다(Yairi & Seery, 2011). 예를 들면 두려움, 근심 그리고 불안은 말더듬을 예상할 때와 말을 시도하기 전에 경험하게 된다. 말더듬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답답함, 공포의 감정을 느끼고, 말을 더듬은 후에는 수치심, 굴욕, 분함 또는 모욕을 느낀다(Yairi & Seery, 2011).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그들이 긴장과 같은 감정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 있다. 말을 더듬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Corcoran과 Stewart(1998)는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강도가 높은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을 확인하였다. 말더듬에 대한 감정은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생긴 후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Blumel, 1932). 4세에서 5세 사이에 아동들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증가하며(Ambrose & Yairi, 1994; Ezrati-Vinacour, Platzky & Yairi, 2001),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일생에 대한 기억력을 신뢰할 만한 연령은 대략 7세이다(Rubin, Wetzler, & Nebes, 1986). 따라

서 말을 더듬는 아동은 5세에서 7세 사이에 말더듬에 대한 경험으로 인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이후 자라면서 겪는 한 사람의 전기적 기억에서 지속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Yairi & Seery, 2011). 이러한 경험이 다양할수록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말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쉽고, 대화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며, 다른 행동으로 말더듬을 숨기려 하면서 청자의 시선을 회피하게 된다. 두려움으로 최악의 대화 상황을 상상하며, 평범하지 않은 목소리를 내거나 에둘러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대처가 다양한 만큼 말더듬에 대한 감정적 반응들도 다양하다. 각 개인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사람, 단어 그리고 말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두려워하거나 특정 단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말에 대한 두려운 감정, 더 이상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죄책감, 의사소통 상황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회의가 그룹치료나 자조그룹 모임에서 공통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말하기 요구에 대한 회피가 작용한다(Bricker-Katz, Lincoln, & Cumming, 2013; Crichton-Smith, 2002).

일반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말을 더듬게 된다.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역으로 말더듬이 불안을 증가시킨다(Ezrati-Vinacour & Levin, 2004). 부정적 반응의 정도는 말을 더듬는 사람마다 미미한 정도에서부터 불안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공포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Kraaimaat, Vanryckeghem & Van Dam-Baggen, 2002; Mahr & Torosian, 1999). 말더듬 중증도가 더 심한 경우 불안 상태가 더 심한 경향이 있지만(Ezrati-Vinacour & Levin, 2004)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 감정적 반응은 말더듬의 진전과 연관이 깊고, 그 정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행동보다 더 심한 핸디캡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말더듬 진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회피행동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교류를 끊게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재적 특성이 다시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인 회피행동을 유도하게 되어 말더듬의 내재적 특성과 외현적 특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말더듬의 인지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불안을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떤 연구들은 성별과 나이를 통제시킨 집단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Hearne, Packman, Onslow & Quine, 2008). 반대로 어떤 연구에서는 말더듬성인이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냈다(Bray, Kehle, Lawless & Theodore, 2003).

말더듬성인의 말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다양한 태도 척도에 의해 조사되었다. DeNil과 Brutten(1991)은 7세에서 14세 사이의 말더듬아동 70명과 성별 및 나이를 통제시킨 일반아동 그룹을 비교하여 조사하였는데, 말더듬아동의 유의미한 부정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하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말더듬을 놀릴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문헌에서는 말을 더듬는 자신을 사슬에 매인 거인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말을 더듬지 않았다면 그 시도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사고의 경향을 드러낸다(Yairi & Seery, 2011). 이렇듯 말더듬은 한 개인에 있어 인생의 관점을 왜곡시키며,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좌절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Yairi & Seery, 2011).

말더듬성인에게 적용되는 또 다른 일반적인 견해는 말더듬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두려움에 대한 경향이다. 그들이 인지적으로 방해를 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자극(예, 말소리나 단어, 상황, 감정 등)의 범위이며, 이것들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시도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자신과 말더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말더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더듬의 인지적 특성은 감정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로 발달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재 시 이를 고려한다. 말더듬 치료 시 말더듬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말을 더듬는 상황을 모니터하여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인지 및 감정적 반응 등을 깨닫도록 훈련하여 인지적 특성을 바꾸는 인지적 재구성하기를 치료활동에 포함시킨다(신문자, 2005; Bennett, 2006; Gordberg, 1995; Manning, 2001; Menzies, Onslow, Packman, & O'Brian, 2009). 그러므로 말더듬 중재 시 말하기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인지적 반응을 다루는 것이 장기적인 말더듬 개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Manning, 2010).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말더듬 순간의 ‘통제력 상실(loss of control)’이 내재적 특성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Bloodstein, 1987; Cooper, 1968; Manning, 1977; Manning & Shrum, 1973). Van Riper는 “말을 더듬는 사람은 자신의 말 더듬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Van Riper, 1937; Manning, 2010 에서 재인용). 그리고 Perkins (1990)는 전형적 비유창성과 말더듬을 구분하는 것은 통제력 상실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감정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의 기저에는 통제력의 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 1977년 WHO의 말더듬 정의에서 ‘불수의적(involuntary)’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통제력 상실의 진짜 말더듬과 가짜 말더듬의 중요한 구분이 된다는 의미이다(Bloodstein, 1987). 즉 가짜로 말을 더듬는 사람은 언제 더듬을지 모르는 불안을 경험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진짜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더듬는 순간에 통제력 상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C. 말더듬성인에 대한 질적연구

1. 질적연구의 목적과 유용성

질적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사회 문화적 행동이나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연구자의 시각을 통해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질적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체계적이며 일상에서도 이 체계성이 관찰되고 기술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취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양적연구와는 다른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양적연구는 주로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고안된 반면, 질적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 현상의 절차적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보다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 또한 질적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실재적 분야를 탐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Stern, 1980). 게다가 느낌, 사고 과정, 감정과 같이 기존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만 추출하거나 알아내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연구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개방된 자세로 연구 활동에 접근한다. 즉, 사전에 정해진 편견이나 기대치를 인지하고 감소시켜야 한다(Tetnowski & Damico, 2001). 이는 연구자 자신이 자료수집의 도구이자 해석자이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8).

Stewart와 Richardson(2004)은 치료의 효과 및 결과를 알아보는 양적연구에서는 결과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치료과정에서 대상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Corcoran과 Stewart(1998)는 언어병리학 내에서 양적연구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게 된 결과, 말더듬 대상자에 대한 실제적인 점들이 연구에서 제외되고 말더듬의 심리사회학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질적연구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 내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Tetnowski & Damico, 2001). 따라서 질적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표현되며 느낌과 감정뿐만 아니라 과정과 관련이 깊다. 결과적으로 자료수집은 특정한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Tetnowski와 Damico(2001)는 말더듬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의 장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연구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말더듬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연구자들은 대상자들의 말더듬 시작 전, 중간 그리고 후에 일어나는 말더듬 관련 행동, 전략 및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초점을 맞춰 말더듬 관련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다.
- 연구자들은 말더듬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할 수 있으며, 대상자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 연구자들은 말더듬 관련 현상과 대상자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말더듬 때문에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다.

또한 말더듬의 문제를 가진 개인에 대한 지식은 연구자 및 특히 언어재활사에게 말더듬 치료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면서, 질적연구 적용의 유용성과 이점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Tetnowski & Damico, 2001).

- 치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삶이 반영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치료 목적/목표 달성 방법에 대하여 대상자와 치료사의 관점을 비교한 연구가 가능하다.
- 중재 과정 중 어떤 부분이 대상자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를 살필 수 있다.
- 치료의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 방법론의 장점과 유용성으로 인해 말더듬과 말더듬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Anderson & Felsenfeld, 2003; Bricker-Katz, Lincoln & Cumming, 2013; Cheek, Onslow & Cream, 2004; Cream, Onslow, Packman & Llewellyn, 2003; Daniels, Hagstrom & Gabel, 2006; Finn & Felsenfeld, 2004; Finn et al., 2005; Hayhow & Stewart, 2006; Huber et al., 2004; Lindsay & Langevin,

2017; Plexico, Manning & DiLollo, 2010; Plexico, Manning & Levitt, 2009a, 2009b; Trichon & Tetnowski, 2011).

2. 말더듬성인 관련 질적연구

성인 말더듬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는 현재까지 국외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은 경험의 중심 의미 혹은 경험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러 개인이 경험한 현상(혹은 주제나 개념)의 의미를 기술한다. 반면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현상의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스키마, 즉 어떤 작용이나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거이론은 일차적으로 면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서 범주를 생성 및 개발하여 관련을 짓고, 실체적이고 특정 맥락에서 사용되는 이론을 만듦으로써 완성된다(Strauss & Corbin, 1990).

현상학적 분석을 통한 말더듬성인 관련 연구는 치료 효과, 말더듬에 대한 대처 반응, 말더듬의 자연 회복의 특성, 자조모임의 유용성, 말더듬 관리 그리고 말더듬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말더듬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현상학적 분석을 이용한 말더듬성인 관련 연구들이다. Stewart와 Richardson(2004)은 치료를 종결한 말더듬성인 8명을 대상으로 말더듬 치료 경험 및 치료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은 말더듬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치료 시 특정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만을 고수하지 말 것과 그룹 치료를 통한 말더듬 경험에 관한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대상자들이 말과 관련하여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울 것을 강조하였다. Plexico, Manning과 DiLollo(2005)는 7명의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화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말더듬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말더듬성인들의 경험은 세 가지 시간 단계(과거, 과도기, 현재)에 걸쳐 수집되었다. 말더듬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던 과거단계에서의 여섯 가지 주제는 점진적 인식, 청자의 부정적 반응, 부정적 감정, 제한적인 생활 방식, 회피 및 부적절한 치료로 나타났다. 과도기단계에서는 성공적으로 말더듬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지, 성공적인 치료, 자기 치료와 행동 변화, 인지적 변화, 개인 경험의 적용 그리고 높은 동기부여와 결정력의 여섯 가지로 분

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말더듬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단계의 다섯 가지 주제는 지속적인 관리, 자기 수용 및 공포 감소, 제약이 없는 상호작용, 해방감, 낙천주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lexico, Manning과 DiLollo(2010)는 치료를 받은 기간이 6개월에서 12년인 19명의 남성과 9명의 여성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말더듬 관리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특히 성공적 치료를 위한 대상자-치료사 간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조사하였는데 대상자들은 의사소통의 성공적인 변화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료 분석을 통해 15가지 범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말더듬 경험에 대한 치료사의 이해, 긍정적인 대상자-치료사 간 연합의 형성, 말더듬과 말더듬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효과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말더듬성인들의 말더듬에 대한 대처 반응을 알아 본 연구로 Crichton-Smith(2002)는 26-86세의 성인 14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경험과 대처 전략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개념은 말더듬성인의 삶은 취업, 교육, 자존감 영역에서 가장 제약을 받았고, 전략은 회피였다.

Finn, Howard와 Kubala(2005)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 회복된 말더듬성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더듬 회복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말더듬에서 회복된 1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7명의 성인은 말더듬이 회복되어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8명의 성인은 말더듬의 문제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말더듬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보고한 성인들은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여전히 말을 더듬는다고 보고한 성인들은 더 이상 말더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유창함을 유지하기 위해 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richon과 Tetnowski(2011)는 말더듬 자조 모임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연구로 말더듬 자조 모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12명의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말더듬 자조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사회 활동의 증가와 말더듬을 개방하는 것이 더 쉬어졌다고 하였다.

말더듬성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는 Corcoran과 Stewart(1998)가 말더듬성인들의 경험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중심 주제를 밝히기 위하여 8명의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파악된 중심 주제는 고통이었으며, 고통의 종류로 심각한 수준의 무력감, 수치심, 공포 및 회피 등 네 가지가 있었다. 또한 Michelle과

Eleanor(2004)는 남아프리카 성인의 말더듬 경험과 삶의 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는 평균 연령 28.9세로, 20-59세 성인 16명이었으며 교육, 사회생활, 취업, 언어치료, 가족 및 결혼 생활, 정체성, 신념 및 정서적 문제 영역에 관련하여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결과는 대부분의 참여자에게서 말더듬이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과 교사 및 급우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말더듬이 우정을 쌓는 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말더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말더듬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승진의 기회를 방해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직업 선택, 일하는 능력, 관리자 및 동료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치료 경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절반 이상의 참여자는 언어치료가 자신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말더듬이 참여자의 가족 및 결혼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말더듬이 자존심과 자아상에 영향을 주었고,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치료 시 말더듬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반드시 다루어야 함과 교사 및 고용주에게도 말더듬에 대한 정보 및 대처전략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이용한 말더듬성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Plexico 등(2009a, 2009b)은 말더듬성인의 말더듬에 대한 대처 반응을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7명의 남성, 2명의 여성 말더듬성인으로, 연령은 19세에서 63세 사이였다. 말더듬에 대한 대처 반응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Plexico 등(2009a)은 말더듬성인들의 회피 전략의 대처 주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말더듬성인들이 말더듬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청자 양쪽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사용한 대처 방법과 과정을 기술하였다. Plexico 등(2009b)은 인지기반의 대처 방식을 자기중심 접근 방식과 문제중심 접근 방식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참여자들이 말더듬에 대하여 회피 대응 방식보다는 접근 대응 방식을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사회, 신체, 인지, 정서적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재활사들이 말더듬의 문제를 중재 할 때 말더듬성인에게 말더듬의 의미와 인식을 전환시킬 때 이해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말더듬성인 경험 관련 질적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황민지(2011)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7명의 20대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말더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된 원인을 급한 성격과 자신감 부족, 타인의 말더듬 모방 및

잘못된 양육 환경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랜 시간 말더듬을 경험해 오면서 말더듬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말더듬에 대한 전문치료기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말더듬에 대한 자료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말더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김민혜(2015)는 말더듬성인 7명을 대상으로 자기 공개에 대한 말더듬성인의 인식을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자기 공개의 범위에 따라 청자의 반응과 자신의 감정 변화가 달랐고, 자기 공개 후 말더듬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이 감소되자 말더듬 빈도가 줄었다고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경험에 관련한 질적연구는 주로 말더듬 치료의 효과 및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 이루어졌다. 말더듬 경험 연구에서도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심 주제를 밝히는 것에 그쳤고, 말더듬에 대한 대처 반응, 말더듬에 대한 인식 또는 말더듬 자기 공개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연구였다. 국내외에서 말더듬성인의 전반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유형이나 과정을 밝혀낸 연구는 전무하였다.

Manning(2010)은 Corcoran과 Stewart(1998)의 말더듬성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언어재활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의 본질과 말더듬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말더듬성인에게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경험의 과정을 통해 말더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밝히는 삶의 경험에 대한 실체적 이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에 대한 유형과 과정을 밝히고 핵심적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유형과 과정을 밝히고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론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근거이론

1. 근거이론의 배경 및 정의

근거이론 방법론은 사회심리학자인 미드(G. H. Mead)가 창시하였고, 제자 블루머(H. Blumer, 1969)가 발전시킨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Muhall, 2001; 신경림 외, 2004 에서 재인용).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Milliken & Schreiber, 2000).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조사하는데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설명적이고 처방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연구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하여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1967)는 타인의 세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지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현장 연구의 한 형태이다. 현장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실무, 행동, 신념,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탐구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추상적 · 분석적 구조인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 연구자들은 이론이란 현장(field), 특히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

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reswell, 2007). 자료로부터 이론을 생성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설과 개념이 자료로부터 나타나며, 연구 중에도 체계적으로 자료와 관련하여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 방법론은 현장에서 존재하는 연구 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유도된 이론으로서 그 현상에 적합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발견하고, 개발하고, 잠정적으로 입증한다(Strauss & Corbin, 1990).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론은 체계적인 과정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 즉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Stern, 1980; 신경림 외, 2004 에서재인용, Strauss & Corbin, 1998). 나아가 인간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Chenitz & Swanson, 1986).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발전시킨 근거이론은 보다 구조적인 틀에 맞춰 자료의 개념화를 유도하고 실체이론¹⁾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경험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윤건수, 2013).

2. 근거이론의 분석과정

근거이론 방법론은 자료 분석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Strauss와 Corbin(1990, 1998)은 수집된 자료의 분석단계를 개방부호화(open coding), 연결부호화(axial coding) 그리고 선택부호화(selective coding) 과정으로 나누었다. 근거이론에서 부호화(coding)는 정보나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질적 정보들을 세밀히 나누어 공통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끼리 묶어 적당한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이다(한승수, 2010). 개방부호화에서는 주어진 자료로부터 개념을 추출하여 범주를 확인하고, 연결부호화에서는 범주의 상호관련성이 정립된다. 마지막으로 선택부호화에서는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간의 체계적인 통합과 정교화가 이루어진다(조성남 외, 2011). 각 단계별 부호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체이론이란 실체적이고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이론으로서(Strauss & Corbin, 1990)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전개된다(Strauss & Corbin, 1990). 연구자들은 이 이론의 형태를 중간 수준의 이론, 거대 이론, 공식적 이론이라고 불리는 더 추상적이고 적용가능성이 큰 이론과 구별한다(Creswell, 2007).

a. 개방부호화(open coding)

개방부호화는 면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키는 일종의 분석 작업이다. 전사한 면담 자료를 한 줄씩 읽어나가는 행간분석법(Line by Line)에 의해 자료가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지 개념(concept)²⁾을 명명하고, 자료에 나타난 사건, 행위, 상호작용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하면서 개념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 추상성이 높은 범주(category)를 이루어 나간다. 범주화란 똑같은 현상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을 그룹 짓는 과정을 말하는데, 범주를 발전시킬 때에는 그 개념의 속성(property)과 차원(dimension)에 의거해서 하게 된다. 즉 속성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특성이나 특징을 의미하고 차원이란 정도라고도 하며 연속성을 갖는 속성들의 위치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0). 연구자는 분석된 개념들은 하위범주로, 하위 범주는 다시 상위범주로 추상화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은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즉, 포화(saturation)상태에 이를 때까지 원자료를 검토한다(Glaser & Strauss, 1967).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말 속에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개념을 끌어내어 명명화하며 범주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떤 선생님은 그랬어요. 너 왜 그걸 안하냐. 그리고 제가 서서히 하게 되면 차분하게 좀 기다려 주면 천천히 읽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학교에서는 야 너 왜 안 해? 왜 똑바로 못해? 왜 더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선생님 질책(개념) ⇒ 주변지지(하위범주) ⇒ 움츠러듬(상위범주)

혼자 그런 것도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죠. 남들은 넘어갈 상황이지만 워낙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표정이 이상해도 아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표정이 뭐 조금 하다가 틀어지면 짜증내는구나 말 저렇게 한다고. 그런 게 머리에 스쳐버려요.

⇒ 피해의식(개념) ⇒ 시선의식(하위범주) ⇒ 움츠러듬(상위범주)

2) 개념(concept)은 사건이나 현상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때, 범주는 개념들의 분류를 의미한다. 범주의 명칭은 개념의 명칭보다 추상도가 높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의 명칭을 그대로 범주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일단 내 능력도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말더듬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약간 소심한 성격이니까...

⇒ 소심함(개념) ⇒ 성격성향(하위범주) ⇒ 움츠러듬(상위범주)

위에 제시한 예는 말더듬성인이 가지고 경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선생님 질책’, ‘피해의식’ 그리고 ‘소심함’의 개념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의미들을 다시 추상화하여 ‘주변지지’, ‘시선의식’ 그리고 ‘성격성향’이라는 하위범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하위범주들을 재검토하면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위범주인 ‘움츠러듬’으로 추상화하였다. 이에 대한 속성은 말더듬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이 놓여지는 구체적인 조건 즉, 맥락적 조건으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자료수집에 의한 정보들을 가지고 비교하여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자료분석의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방법이라고 한다(Creswel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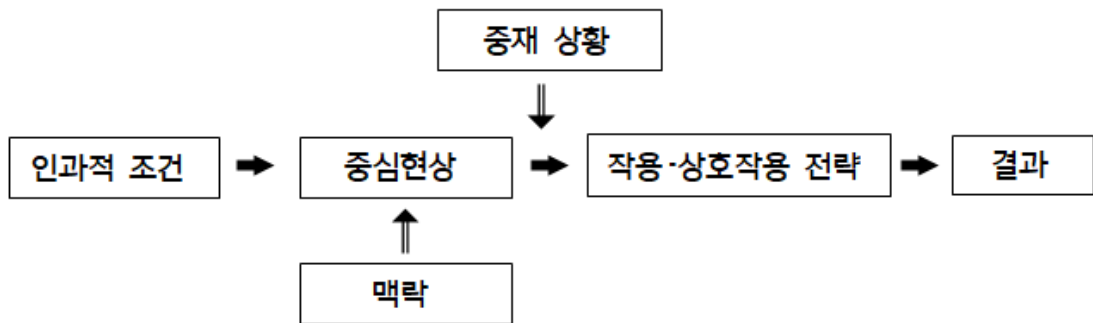
b. 연결부호화(axial coding)

연결부호화는 개방부호화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토대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시각적인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개의 코딩 패러다임, 즉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로 분류하여 범주에 따라 패러다임 모형이 연결된다.

-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사건을 말한다.
- 중심현상(core phenomena)은 현상이라고도 하며,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이다.
- 맥락(context)은 어떤 현상이 놓여져 있는 일련의 속성들의 구체적인 나열이며 어떤 현상이 속하는 일련의 상황을 의미한다.
- 중재 상황(intervening condition)은 중재적 조건이라고도 하며 특정한 맥락 내에서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작용하는 조건이다.
-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은 전략이라고도 하며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쓰이는 전략으로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특성이 있다.
- 결과(consequence)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를 말한다.

연구자는 왜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어떤 결과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6개의 코딩 패러다임의 역할에 따라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나간다. Creswell(2007)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앞의 개방부호화를 통하여 먼저 중심현상을 확인하고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중심현상과 관련된 범주들을 만들게 된다. ① 무엇이 중심현상을 발생하게 하는가, ② 이 중심현상에 반응하기 위해 참여자가 선택한 전략이나 행동은 무엇인가, ③ 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구체적)이고 중재적인(폭넓은 맥락) 조건들은 무엇인가, ④ 이 전략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전반적인 이 과정은 정보의 범주들을 중심현상 범주에 관련시키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0).

연결부호화에서 제시된 패러다임의 모형은 <그림-1>과 같다(Strauss & Corbin, 1998).



<그림-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8)

c. 선택부호화(selective coding)

개방부호화를 통해 개념과 범주를 생성한 후, 연결부호화를 통해 범주들이 체계적으로 발전 및 연결이 되어 패러다임 모형이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선택부호화에서는 이론화 작업을 완성하게 된다. 먼저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나머지 범주들을 다시 연결하고 분류해 보면서 핵심범주를 파악한다. 핵심범주(core category)란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중심범주로 각각의 범주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을 형성하도록 모을 수 있는

능력과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적 힘을 가지고 있다(Strauss & Corbin, 1998). 다음은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킨 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만들고 범주를 좀 더 정련화 시키는 과정이다. 즉 모든 범주들이 하나의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이론이 구축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범주 간의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설적 정형화를 제시하고,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유형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과정분석에서 과정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을 순서적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작용·상호작용이 중재적 상황 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의 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강소영·박상진, 2017). 과정은 진행적인 특성이 있고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적인 과정이다. 주로 시기(phase)나 단계(stage)로 표기한다.

B. 연구설계

1.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근거이론 방법론은 다른 질적연구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핵심특징이 있는데 이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이다. 근거이론에서는 양적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 즉 무선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이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느냐를 기준으로 유의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을 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연구자자 자신의 연구주제나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를 미리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을 통해 발견해 나간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연구 참여자 자체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 가능한 많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참여자 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최종혁, 2011).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첫 번째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 분석결과와 비교하면서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면담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8). 다시 말해서 연구참여자는

무작위표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적합한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는 광주·전남 그리고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말더듬치료 전문기관에 말더듬으로 평가가 의뢰되었거나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말더듬성인들이다. 이들 중 연구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다. 말더듬성인들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였으며 8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었다. 말더듬성인의 선정기준은 (1) 스스로 말을 더듬는다고 보고하며, (2)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Ⅱ(Pradise-Fluency Assessment Ⅱ,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재활사에 의해 말더듬으로 진단되고, (3) 자신이 말더듬 이외에 언어 및 신체, 정서, 발달 문제가 없으며,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사람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성인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1>과 같고 참여자는 면담의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표-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지역	말더듬 중증도	치료 경험
A	36	남	대졸	선박설계사	전남	중간	없음
B	59	남	고졸	양식업	전남	중간	1개월
C	28	남	대졸	사회복지사	전남	약함	1년
D	60	남	대졸	금융업	광주	심함	6개월
E	23	남	대학휴학	군복무중	광주	심함	3년
F	29	여	고졸	주부	전남	약함	없음
G	35	남	고졸	운송업	광주	중간	1개월
H	40	남	대학중퇴	양식업	전남	중간	5개월
I	35	여	대졸	공무원	전남	약함	2주
J	42	남	대졸	개인사업	서울	심함	없음

2.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말더듬 그리고 말더듬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사과정 중에 언어재활사의 말더듬아동 치료경험에 관한 연구(신문자 · 최소영, 2012)와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최소영 · 신문자 · 송미승, 2016)을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체이론과 유형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언어재활사들이 의사소통장애 분야 중 말더듬 치료를 어렵거나 까다롭게 여기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로 말더듬 치료를 하는 언어재활사로서 치료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언어치료 현장에서 많은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말더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경험을 포함하여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을 수강하게 되었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는 질적연구가 적절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자는 주로 성인 말더듬 문제를 다루는 언어재활사로서 대상자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였으나 질적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특정한 이해와 편견을 연구에 끌어들이는 것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영향력이 제거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양적이든 질적이든 모든 연구에 있어서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자료분석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분석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 개인적 경험은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Berg & Smith, 1988; Glesne & Peshkin, 1992; Janesick & Peshkin, 1992; Reason, 1988; Strauss & Corbin, 1998).

이에 본 연구자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민감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상자와의 면담에서부터 자료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전략을 따르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2월 10일에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2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10명의 말더듬성인과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 과정은 삼성 갤럭시 S7으로 녹음을 하였고,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50분~2시간, 면담횟수는 1회부터 2회까지 진행되었다. 이들과의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³⁾방식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개념과 범주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에 앞서 참여자에게 면담자료는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과, 논문에 필요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적인 신분이나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면담을 진행하는 도중이라도 면담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지 중지할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동의를 받았다<부록 2>. 자료수집을 위하여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면담일시를 정하였고 치료실이나 상담실에서 만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면담 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면담 초기에는 녹음되는 것을 의식했던 참여자도 차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았다. 면담 중간에 너무 오래된 기억으로 잘 떠오르지 않거나, 연구자의 질문에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은 전화면담을 추가하거나 면담날짜를 추가로 다시 잡아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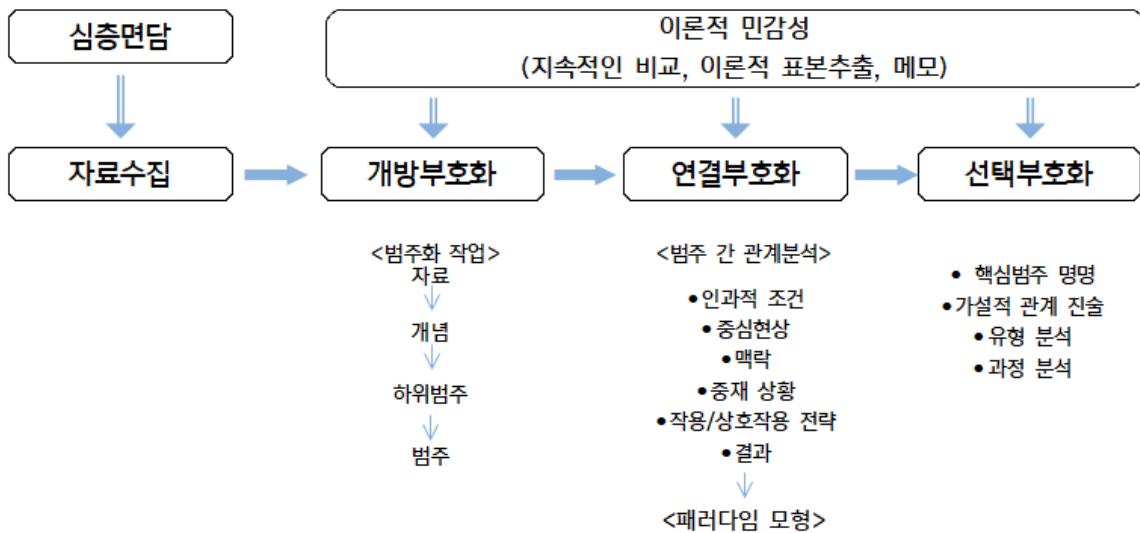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자료는 즉시 전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참여자의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 참여자의 질문에 반영하여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 하면서 면담을 계속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참여자의 반응이나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점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들은 이론적 노트와 전략적 노트에 기록하면서 자료수집을 확대하였다.

3) 비구조화된 면담은 면담 질문의 내용, 형식, 순서를 면담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지시나 방향을 제시하여 참여자로부터 풍부한 실제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이다. 예로 들어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요?,” “그때 어떤일이 있었나요?” 등의 질문은 연구참여자에게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했는지에 대해 대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4.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선정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따른 근거이론을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단계는 개방부호화, 연결부호화, 선택부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개념과 범주를 찾아내는 개방부호화를 시행한다. 개방부호화를 통해서 드러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부호화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각 범주들을 인과적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 상황, 전략, 결과로 분류하여 범주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하나의 시각적 틀로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부호화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에 따라 가능한 상관관계를 정형화하는 가설적 정형화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를 근거로 유형분석을 세분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분석을 하고 상황적 관계를 파악하면서 실체이론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연구의 흐름도

5. 연구의 평가

질적 연구방법론은 객관적이고 통계적 가설과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양적 연구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주관적이고 통찰, 발견,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 접근방법이 반영된 연구방식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들은 평가에 적합한 기준을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Guba, 1981; 신경림, 2001에서 재인용).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네 가지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네 가지 기준을 기술하고 그러한 기준을 본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가 얼마나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평가 기준으로 양적 연구에서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이는 신빙성(credibility)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연구자가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성인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당시 말더듬 중증도, 전문적인 치료경험의 유무, 연령, 직업 등을 가능한 다양하게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말더듬 중증도는 약함이 3명, 중간이 4명, 심함이 3명이었고, 치료경험은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참여자가 3명, 6개월 미만의 치료를 경험한 참여자가 4명,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3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는 3명, 30대는 3명, 40대는 2명, 50대는 1명, 60대는 1명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직업은 참여자 2명만 직업이 동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직업을 가졌다. 또한 자료 분석이 끝난 후, 각 참여자들에게 전사한 자료와 분석한 개념을 보여주고 참여자의 중심 경험과 단어가 적합한지, 본인들이 드러내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의견을 요청하였다. 확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에 관한 진술이 적합하게 기록되었다고 하였고, 연구결과에 구두로 동의하였다.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양적연구에서는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음(transferability)’으로 정의되며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 상황, 환경 등에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언어치료를 받기위해 대기 중인 말더듬성인 1명과 말더듬 치료를 종결한지 3년이 경과한 말더듬성인 1인을 대상으로

로 연구결과가 자신의 삶의 경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확인 결과 언어치료를 받기위해 대기 중인 말더듬 성인은 본 연구결과 중 유형분석에서 통한형에 해당되었고, 치료를 종결한 말더듬성인은 순응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들의 삶의 경험이 본 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말더듬성인 1인의 삶의 경험관련 수필을 근거이론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체념형의 유형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일관성은 연구결과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정도이며 양적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다른 연구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 외에도 연구자의 자료, 견해, 주어진 상황에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 이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였다(차혜경, 2008).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으며,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념 및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이론 연구 경험이 15년 이상인 교수 1인과 말더듬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성될 때까지 매주 만나서 논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가 주로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말더듬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개방부호화 과정에서 개념과 범주를 추출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유념하도록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말더듬치료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수 1인과 논의 과정 후, 논문지도교수들에 의해 다시 한 번 검증 받는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중립성이란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때 이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하며 이를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이라고 한다. 질적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사실적 가치, 적합성 및 일관성이 확립될 때 획득된다고 하였다(Lincoln & Guba, 1985).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면접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비구조적인 면담으로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A.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개념 범주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25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이 개념은 <말더듬 발현>, <부담감>, <시선 의식>, <비판적 반추>, <굴레>, <지레 겁먹음>, <숨김>, <회피> 등의 33개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들 하위범주는 다시 [놀림감], [두려움], [지레짐작], [성취욕], [긍정적 추진], [자기억압], [순응], [체념] 등 16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성인의 말더듬 경험에서 나타난 개념과 범주는 <표-2>와 같다.

<표-2>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 범주

개 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급하게 말함, 싸울 때 말 막힘, 급하면 통제 안 됨, 속사포, 말을 길게 하면 막힘, 말 안 나옴, 전화통화 힘듦, 말더듬음, 말 끊김, 부정확한 발음, 발음 안 됨, 단어반복, 버벅거림, 말꼬임, 대답 못함, 신체적 장애와 똑같음, 행동 통제 안 됨	말더듬 발현	말더듬 인지	인과적 조건: *말더듬 인지 *놀림감
놀림, 친구들이 따라함, 선생님이 따라함, 웃음거리, 이해해 주는 사람, 동네사람 혼수, 냉소, 반병어리, 비웃음, 무시당함, 상대방이 말을 끊어버림, 매 맞음	웃음거리	놀림감	
발표 부담됨, 발표순서, 첫 번째로 발표, 다른 사람이 대신 발표, 말 막힘에 대한 무서움, 긴장함, 스트레스, 연장자 앞에서 심함, 까칠한 사람 앞에서 심함, 결혼 후 심해짐, 출산 후 심해짐	부담감	긴장됨	
면접 망침, 면접 떨어짐, 순서 기억 안 남, 공식석상 말실수	말실수 공포증	두려움	맥락: *긴장됨 *두려움 *움츠러듬
내 자식이 나처럼 될까봐 두려움, 자녀에게 대물림, 유전, 미안함, 가족력, 자녀가 따라함	대물림		
선생님 질책, 부모님 질책, 무서운 선생님, 더듬지 말라고 강요함, 할아버지가 혼냄, 부모님 말더듬 지적, 심부름, 친구들이 도와줌, 아버지가 멘토임, 단전호흡, 서예학원 보내 줌, 수용적 가정 분위기, 부모가 무심함	주변 지지	움츠러듬	
무시당한다고 미루어 짐작함, 시선의식, 눈치 봄, 비웃는 느낌, 눈치 봄, 피해의식, 가벼워 보일 것 같음, 유심히 쳐	시선 의식		

다름, 상대방이 당황함, 눈빛					
적극적임, 활발함, 긍정적임, 소심함, 활동적임, 급함, 내성적임, 낮가림	성격 성향				
일상생활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불편함, 의사전달 안됨, 설명할 때 말 막힘, 순서 바꿈, 헛갈림, 대화단절	사회적 소통 장애				
짜증남, 괴로움, 한심함, 명청해 보임, 자신감 저하, 초조함, 당황함, 화남, 소문날 까봐 걱정됨, 수치심, 불안함	자신감 저하				
하고 싶은 일을 선택 못함,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함, 말더듬 때문에 능력 과소평가됨, 능력 발휘 못함, 내 삶의 전부를 빼앗음, 패배감	걸림돌				
동료 승진이 부러움,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움	부러움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중심 현상: *말더듬 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벗어나지 못한 자신이 미움, 자기혐오, 자기 비하, 원망, 소리 지름, 욕함, 속앓이, 분풀이	비판적 반추				
극복 못함, 스스로 말더듬 한계를 자인함, 말더듬이 내 삶을 주도함, 말더듬을 끝내고 싶음, 벗어나고 싶음, 장애물	굴레				
치밀어 오름, 응어리, 울음, 말더듬과 친구 안하고 싶음, 창피함, 내게만 발생한 고난, 내게만 생긴 시련, 억울함, 가슴아픔, 불행함, 답답함, 죽고 싶음	한맺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음,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음, 유창하게 언어구사하고 싶음, 사업상 대화 주도하고 싶음, 의사전달 잘 하고 싶음, 간절함, 재산으로 바꾸고 싶음	간절한 염원				
말 막힘 예상됨, 말더듬 예상됨, 지레 겁먹음, 창피함이 예상됨, 안 좋은 기억 떠오름, 발표 실수 기억 떠오름, 놀림 받은 기억 떠오름, 창피한 기억	지레 겁먹음	지레 짐작	중재 상황: *지레 짐작 *성취욕 *열린 마음		
성취욕 강함, 욕심 많음, 승진기회 열망, 발표성공 경험 쌓고 싶음, 부서장 되고 싶음, 후회하기 싫음, 직장 옮기고 싶음, 기술영업직 희망	성공 욕구	성취욕			
인정받고 싶음, 나서고 싶음, 박수 받고 싶음, 남 앞에 서고 싶음, 멋있게 발표하고 싶음, 주목받고 싶음, 멋지게 보이고 싶음, 좋은 평판 받고 싶음	인정 욕구				
뻗뻗하게 미리 말함, 긍정적 사고, 더듬어도 그냥 말함	드러냄				
말더듬 알리고 싶지 않음, 용기 없음, 들키고 싶지 않음, 오픈 못함, 친구에게 말하지 않음,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음	숨김	열린 마음			
호흡조절, 힘을 뺌, 느리게 말하기, 의도적 조절, 복식호흡 연습, 언어치료 받음, 치료실이 편안함, 도움 됨, 한 템포 쉬, 배운 대로 말해보기	치료 기제 사용	긍정적 추진	전략: *긍정적 추진 *홀로		
책 읽기, 시 낭송, 판소리, 경로당, 스피치 학원, 혼자 고	나홀로	홀로			

민, 속으로 연습함, 친목카페 개설, 모임에서 발표하기, 각본 외워서 발표, 치료기관 불신, 치료받지 않음	치료		
다른 용어 선택, 말 돌림, 짧게 말하기, 쉬운 말로 간단히 끝냄, 말수 줄임, 앞서 끝냄	나만의 노하우	분투	
치료기관 없음, 치료정보부족, 방법 모름, 잘못된 정보	정보 부족		분투 *자기 억압
발표기회 포기, 스스로 저버림, 승진기회 거절, 직책 사양, 자포자기, 나서지 않음, 욕심 억누름, 승진 꺼림, 말할 기회 양보, 스스로 억압, 자제함, 학업포기	포기	자기 억압	
피함, 발표 많지 않은 학과 선택, 말 안하는 직업 선택	회피		
평생 안고 가야하는 친구로 생각함, 평생 동반자, 받아들임, 긍정적 수용, 나의 일부로 인정	자기 인정	순응	
만족함, 편안함	안정됨		
후회, 자책, 안타까움, 괴로움, 원망스러움, 한심함	후회	통한	결과:
삶의 의욕 사라짐, 굴곡 심함	의욕 상실	무력감	*순응 *통한 *무력감 *체념
내 탓, 말더듬 탓, 내가 말더듬을 따라함	탓		
치료효과 미지수, 쉽게 고칠 수 없음, 완벽한 치료 기대 안 함, 의기소침, 위축, 방법 없음, 대안 없음, 근본 치료 안 됨,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짐, 족쇄, 장벽, 연습해도 소용없음, 말더듬에 둔감해짐	대안 없음	체념	

B.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개발의 과정은 개방부호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범주들을 중심현상의 축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 중심현상, 중재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표-2>에 제시한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개념 및 범주를 Strauss와 Corbin (2001, 2008)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인과적 조건, 맥락, 중심현상, 중재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말더듬 인지] , [놀림감]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사건들로 구성된 인과적 원인이다. 본 연구자료의 분석 결과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를 일으키는 원인, 즉 인과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말더듬 인지] , [놀림감] 으로 파악되었다. 말이 자꾸 끊기거나 막히고, 대답을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말을 더듬지 말라고 강요를 당하거나, 말을 통제할 수 없어서 자신이 말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말더듬 인지]가 중심현상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을 더듬었을 때 친구들이나 교사가 말더듬을 따라하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놀림감]이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자료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장애 같으면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고 이해를 해주는데... 나는 말을 이렇게 잘 못하고 막히고 끊기고 버벅거리면서... 그러다가 속사포처럼 터져서 나온다니까요 전달을 못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참여자 D)

⇒ 말 막힘, 말 끊김, 속사포 ⇒ <말더듬 발현> ⇒ [말더듬 인지]

담임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밑에 학년인가 갔는데 그쪽 선생님이 좀 사람이 좀 별로였어요. 제가 답안지를 받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제가 더듬으면서 말을 했나 봐요. 그쪽 선생님이 제 말하는 걸 따라하면서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예요. 제 기억엔 분명 그 선생님은 말을 더듬는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이 하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듣고 막 웃었죠. 그래서 그때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일을 그때 당시 아빠한테 말 했어요. (참여자 E)

⇒ 선생님이 따라함 ⇒ <웃음거리> ⇒ [놀림감]

2. 맥락(context): [긴장됨] , [두려움] , [움츠러듦]

맥락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일련의 속성들의 구체적인 장으로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

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의 심리적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표출하고 해결하는 모든 전개 과정에 말 막힘에 대한 무서움과 말이 막혔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야 하는 [긴장됨]의 정도가 관여됨을 알 수 있었다. 공식석상에서 말을 실수했던 공포감, 자녀에게 대물림된 말더듬으로 인하여 자식이 받을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의 강도와도 연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을 더듬었을 때 선생님께서 질책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혼나고,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움츠러듬]이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긴장됨]의 속성은 상태이며, 정도의 영역은 심함-약함이고, [두려움]의 속성은 상태이며 그 영역은 큼-작음이다. 또한 [움츠러듬]의 속성은 정도이며 그 영역은 강함-약함이다. 분석 자료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발표할 기회가 되거나 그런 날 있잖아요. 뭐 3일이면 13번 23번 이렇게 되면 친구들한테 말 해놔야 해요. 뒷 번 친구한테 나 오늘 부를 건데 미안한데 책 좀 대신 읽어줘 라고 부탁을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 발표하는 수업시간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참여자 A)

⇒ 발표 부담됨, 다른 사람이 대신 발표 ⇒ <부담감> ⇒ [긴장됨]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무슨 일 없으려나 말 때문에? 이를테면 직장에서 누구 높으신 분이 왔을 때 발표라던지 인사말씀을 제가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아침부터 불안한거죠. 말을 안 끊기고 안 더듬고 차분히 해야 하는데 제 의지하고 관계없이 말이 안돼요. (참여자 D)

⇒ 공식석상 말실수 ⇒ <말실수 공포증> ⇒ [두려움]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때 당시에는 발표하고 내려오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야하는데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 때 되게 기분이 그랬던 거 같아요. (참여자 I)

⇒ 피해의식 ⇒ <시선의식> ⇒ [움츠러듬]

3. 중심현상(core phenomena):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중심현상이란, 참여자의 행동이 일련의 전략을 통해 조절되는 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성인의 삶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이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말더듬 인지], [놀림감]이라는 인과적 조건에 의해 참여자의 내면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가 처한 중재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형, 발전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더듬이 심해지게 되는데 말이 막혀서 의사전달이 어렵거나, 말의 순서를 바꾸어 말을 하게 되어 자신도 말의 내용이 헛갈리게 되어 소통에 장애를 겪었다. 그러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감이 점점 저하된다고 하였다. 직장에서도 말더듬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과소평가되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말더듬으로부터 삶의 전부를 빼앗겼다는 패배감을 느끼게 되어 말더듬을 인생에서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말더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밋고 원망스러우며, 말을 더듬었던 상황이 떠오르면 이불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분을 삭히기도 하였다. 말을 잘하는 동료의 승진을 보면서 자신만이 겪는 시련이 억울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겼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말더듬이라는 굴레에 갇혀 평생토록 말더듬이 자신의 삶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말더듬으로 인한 한계를 자인하였다. 이에 남들 앞에서 말을 조리 있고 유창하게 해보는 것과 말더듬으로 인해 선택하지 못했던 일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 말더듬성인의 삶은 말더듬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점유되어 있어 마치 소가 ‘멍에’를 매고 있는 모습처럼 그려졌다. 멍에의 사전적 의미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이다. 참여자들이 말더듬을 원하지 않지만 벗어나기 힘들고, 버겁지만 도망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겼는데 이 모습은 마치 소가 멍에에 매인 모습과 비슷하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말더듬을 장애로 여기고 있으나, 반면 말더듬을 경험할 때마다 남들로부터 정상이란 것으로 비쳐질까봐 조바심을 내거나 말더듬을 숨기려 애썼다. 또한 평생토록 말더듬이 완치되지 못하여 누리하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

할까봐 두려워하며 말더듬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강하였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말더듬에 삶이 점유당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멍에를 지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에 성인의 말더듬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을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라고 명명하였다.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의 속성은 정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강함-약함이었다. 분석 자료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네 그러면 말이 안 나와서 순서를 다 바꿔버려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헛갈려 버려요. (참여자 C)

⇒ **순서 바꿈, 헛갈림** ⇒ <사회적 소통장애>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그래서 내가 토론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남들은 한 세 번 네 번 하면은 나는 한 번 하고 말고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냥 한번만 하자 하고 말고 그럴 때 너무 괴롭죠. (참여자 B)

⇒ **괴로움** ⇒ <자신감 저하>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모임이나 어딜 갔을 때 별 일 없어야 할 텐데. 실수하거나 뭘 못하거나 남한테 더듬어가지고 막혀서 말 못했을 때 그런 일 없으려나 불안한 거.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긴장이 되고. 제 삶에 전부를 빼앗은거죠. 말이. (참여자 D)

⇒ **내 삶의 전부를 빼앗음** ⇒ <결림돌>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제가 아무리 유리해도 저버리지.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뭘 말인지 못 알아먹는 데요? 급하게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속에서 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밖에서 말 못하고 힘든 것을 집에 오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와. 악을 써버리고 떠올리면 그냥 미쳐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말 했지?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말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죠. 말이 끊기고 더듬어가지고 못해버리면 집에서 막 악쓰고 그러면 혼자 분풀이를 혼자 악 쓸 때도 있고 욕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마누라가 무슨 일 있어서 악쓰고 욕 하냐고 그러면 나 혼자 속앓이 하죠. (참여자 D)

⇒ **속앓이, 분풀이** ⇒ <비판적 반추>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뉴스 앵커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샘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럽죠. (참여자 C)

⇒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움 ⇒ <부러움>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

말더듬 아니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삶이 사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안 더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여자 H)

⇒ 억울함 ⇒ <한맺힘>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

그걸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저에 대한 증오라고 하기는 그렇고 미워하는 그런... 제 자신이 미운거죠.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못하지 그런 항상 제약이 돼버리는 게 너무 싫은거예요 지금. 뭐 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말이라는 게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갈림길이면 어느 곳으로든 갈수 있어야 하는데... (참여자 A)

⇒ 극복 못함, 말더듬이 내 삶을 주도함 ⇒ <굴레>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

아 돈으로도 바꾸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이 13억이 있어요. 3억만 남겨두고 10을 주고서 라도 바뀌도 될 상황이에요. (참여자 H)

⇒ 재산으로 바꾸고 싶음 ⇒ <간절한 염원> ⇒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

4. 중재 상황(intervention condition): [지레짐작] , [성취욕] , [열린 마음]

중재상황은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인 상황으로 특정한 맥락 안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도록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본 결과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의 생성, 표출, 해결 등 모든 전개과정은 참여

자가 말을 더듬기 전에 말더듬으로 인하여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나 실수한 기억 그리고 말막힘이 예상되어 지레 겁을 먹는 [지레짐작] 의 정도가 중재상황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취욕이 강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주위로부터 박수 받고 싶은 [성취욕] , 말하기 전에 떳떳하게 말더듬을 밝히거나, 반대로는 가족에게도 말더듬을 공개하지 못하여 [열린 마음] 의 정도가 작은 중재상황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이 중재상황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레짐작] 의 속성은 상태이며 정도의 영역은 큼-작음이다. [성취욕] 의 속성은 양상이며 정도의 영역은 강함-약함이고, [열린 마음] 의 속성은 상태이며 정도의 영역은 큼 - 작음이었다. 분석 자료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다시 또 안 좋은 기억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안 나서려고 하는거죠. 면접을 보면 자꾸 그때가 떠오르니까... (참여자 A)

⇒ 안 좋은 기억 떠오름 ⇒ <겁먹음> ⇒ [지레짐작]

그렇게 잘해서 인정도 받고 싶고, 앞에 나가서 멋지게 발표를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은데 아 또 나가면 실수할거 같아 말더듬을 거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내가 차단을 해버리니까 마음에서 상충이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I)

⇒ 인정받고 싶음 ⇒ <인정 욕구> ⇒ [성취욕]

저는 이제 발표할 때는 제가 좀 말을 더듬으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사전에 이야기하고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학년을 올라가서 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자기소개를 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말을 더듬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라고요. 뭐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참여자 D)

⇒ 떳떳하게 미리 말함 ⇒ <드러냄> ⇒ [열린 마음]

5. 작용 · 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 [긍정적 추진] , [홀로 분투] , [자기억압]

작용 · 상호작용 전략이란 주어진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현상을 조절하고 반응하려는 참여자의 작용/상호작용이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가 겪고 있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는 그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대처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자료 분석 결과 언어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언어치료실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복식호흡이나 느리게 말하기 등의 치료기제를 습득해서 사용하는 [긍정적 추진] , 말더듬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치료실에서 도움을 받기 보다는 시낭송이나 판소리를 배우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말 연습을 하거나, 짧게 말하기 등의 자기만의 노하우를 익히는 [홀로 분투] 를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타인에게 말더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여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포자기함으로 승진의 기회를 거절하고 스스로를 억압하여 사회적 성공의 욕심을 애써 누르는 [자기억압] 을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자의 [긍정적 추진] , [홀로 분투] , [자기억압] 등 서로 다른 대처 전략을 선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분석 자료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편해 졌고. 배우기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치료 받기 전에는 말더듬는 것을 내가 숨기고 싶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이게 장애가 아니구나. 떳떳하게 말을 미리 말하고 말 더듬는다고 상대방한테 말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참여자 C)

⇒ 언어치료가 도움 됨 ⇒ <치료기제사용> ⇒ [긍정적 추진]

나는 언어장애 때문에 표현을 못한 것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려고...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요. 근데 그것이 그 때 뿐이야. 또 다시 또 근본적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많이 다니는 데가 노인들 경로당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말 많이 해보려고 사람 많이 있는데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언어 저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려고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가서... 그러다보면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모니카도 한 번씩 불러드리고 판소리도 배운것

도 그 이유죠. (참여자 D)

⇒ 경로당, 판소리 ⇒ <나홀로 치료> ⇒ [홀로 분투]

또 이제 그럴 기회가 또 오게 됐을 때 제가 피하려고 했죠. 윗분들에게 이야기 해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남들 앞에서 발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빼 달라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또 미리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참여자 I)

⇒ 발표기회 포기 ⇒ <포기> ⇒ [자기억압]

6. 결과(consequence): [순응] , [통한] , [무력감] , [체념]

근거이론에서 결과란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가 전략이라는 행동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략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순응] , [통한] , [무력감] , [체념] 으로 도출되었다. [순응] 은 말더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평생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로 여기며, 여전히 말을 더듬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더듬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통한] 은 말더듬을 물려준 부모와 말더듬을 극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 자책 그리고 후회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지만 여전히 고쳐지는 않는 말더듬과 그로 인한 반복되는 굴곡으로 의욕상실을 경험하며 [무력감] 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고, 말더듬에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말더듬에 둔감해진 [체념] 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분석 자료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글썄... 말더듬은 나의 일부. 나의 뭐... 내 팔이든 다리든 머리든 내가 말더듬는 한은 그거를 내가 뭐 감춰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나의 일부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랑 지속적으로 볼 사람한테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놓고 그냥 터놓고 맘 편하게 들어가는 쪽을 택했고 (참여자 J)

⇒ 받아들임 ⇒ <자기인정> ⇒ [순응]

그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 자신이 바보 같았죠. 원망스럽고... 왜나는 이럴까... 부모님도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일찍 좀 치료 좀 해주시지... (참여자 I)

⇒ 원망스러움 ⇒ <후회> ⇒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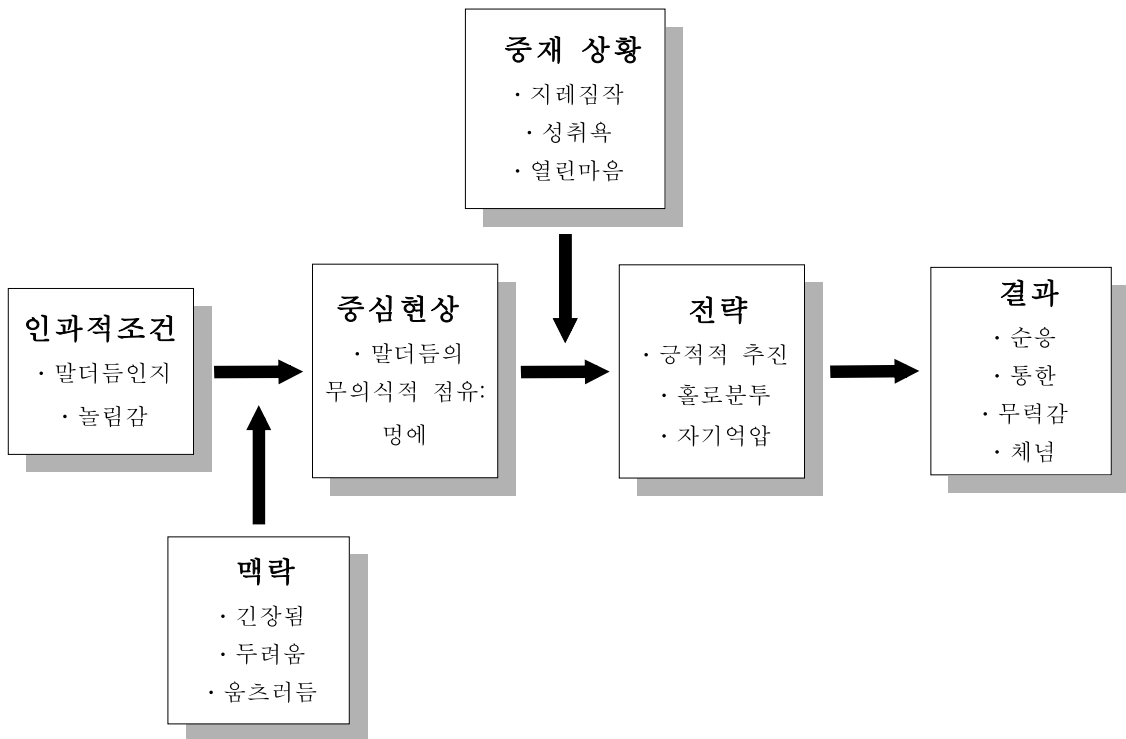
그럴 때는 미쳐버리겠죠. 사는 것이 무엇이나.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느낌. 어떨 때는 내가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게 좋겠다. 자살까지 충동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 건데... (참여자 D)

⇒ 삶의 의욕 사람짐 ⇒ <의욕상실> ⇒ [무력감]

이제는 말더듬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말더듬으면 그냥 빨리 다른 말을 해야겠다. 얼른 말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끊기니까 또 다른 말을 이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참여자 F)

⇒ 말더듬에 둔감해짐 ⇒ <대안 없음> ⇒ [체념]

이상에서 제시한 개념의 범주화를 거쳐 인과적 조건에서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에서와 같이 자신의 [말더듬 인지], [놀림감] 을 원인으로 생성된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는 맥락인 말더듬에 대한 [긴장됨], [두려움], [움츠러듬] 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그 강도가 달라진다. 강도가 결정된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에 대하여 참여자는 중재 상황인 [지레짐작], [성취욕], [열린 마음]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처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긍정적 추진], [홀로 분투], [자기억압] 중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순응], [통한], [무력감], [체념] 의 결과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3>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 패러다임 모형

C. 핵심범주

핵심범주란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중심현상을 의미한다. 범주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참여자들은 말더듬이라는 명에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와의 동행’이다.

‘명에’란 소의 목에 엮는 ㄸ모양의 가로나무로 행동에 구속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비유하는 것을 일컫는다(이희승, 2003). ‘명에를 메다’라는 관용구의 의미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이다’이다. 이처럼 말더듬은 참여자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말더듬으로 인한 무의식적 통제 불능 상태, 즉 불수의적으로 말더듬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참여자들은 말더듬을 해결할 수 없어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명에로

인식하면서 일생동안 말더듬의 멍에와 동행하고 있었다. 멍에를 메다라는 말은 행동에 구속이 있고 어떤 고역을 치르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행하다’라는 말은 같이 길을 간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에 대한 핵심범주에 ‘동행’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이유는 참여자들이 말더듬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말더듬 경험에 대한 삶의 유형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말더듬의 멍에를 내려놓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추진을 통하여 치료기제를 획득하기도 하였고, 말더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찾거나, 스스로 회피나 포기를 하는 자기억압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동행하기도 하고(순응), 부정적으로 동행하기도 하며(통한), 소극적으로 동행하는(체념)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핵심범주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와의 동행’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변화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고, 참여자의 행동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알 수 있다.

D.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가설적 관계 진술과 유형 분석

1. 가설적 관계 진술

가설적 관계 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 상황 그리고 결과와 전략의 속성 사이의 가설적 관계에 대해 정도의 영역을 함수로 하여 진술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범주들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 진술은 다음과 같다. a부터 f는 맥락적 조건들에 따른 중심현상의 정도에 대한 관계, g부터 j는 중재 상황과 전략 간의 관계 진술이다. 마지막으로 m부터 q까지는 중심현상을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른 결과에 대한 관계 진술이다.

a. 긴장됨의 정도가 심할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정도는 강해질 것이다.

- b. 긴장됨의 정도가 약할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정도는 약해질 것이다.
- c. 두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정도는 강해질 것이다.
- d. 두려움의 정도가 작을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정도는 약해질 것이다.
- e. 움츠러듬의 정도가 강할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정도는 강해질 것이다.
- f. 움츠러듬의 정도가 약할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정도는 약해질 것이다.
- g. 지레짐작의 정도가 클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자기억압과 홀로분투로 대처할 것이다.
- h. 지레짐작의 정도가 작을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긍정적 추진으로 대처할 것이다.
- i. 성취욕이 강할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자기억압과 홀로분투 전략으로 대처할 것이다.
- j. 성취욕이 약할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긍정적 추진 전략으로 대처할 것이다.
- k. 열린 마음일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긍정적 추진 전략으로 대처할 것이다.
- l. 열린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자기억압과 홀로분투로 대처할 것이다.
- m.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긍정적 추진 전략으로 대처할수록 말더듬과 순응하는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 n.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홀로분투로 대처할수록 통한과 체념이 남을 것이다.
- o.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자기억압으로 대처할수록 통한과 무력감 그리고 체념이 남을 것이다.
- p.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긍정적 추진 전략으로 대처하더라도 체념은 남을 수 있을 것이다.
- q.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 에 대해 자기억압으로 대처하더라도 말더듬

과 순응하는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2. 유형 분석

유형분석이란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의 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를 3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a. 통한형

참여자의 말더듬에 대한 [긴장] 정도가 심하고, [두려움] 이 크며 [움츠러듦] 이 강하면서, [지레짐작] 하여 미리 겁을 먹을 때가 많고 [성취욕] 은 강하지만 [열린 마음] 을 닫아 숨김이 강하면,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에 대하여 [자기억압] 과 [홀로분투] 전략으로 대처하여 [통한] 과 [무력감] 이 남는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참여자 D, B, A, 그리고 I 이다. 참여자 D는 말을 길게 할수록 막힘이 심해지므로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끼고, 말이 통제가 되지 않고 속사포처럼 터져 나와 어릴 적부터 주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공식석상에 서는 것이 가장 공포스럽고, 반병어리 같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상실되었다. 상대방이 말을 먼저 끊어버려서 자신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에는 한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이에 자신을 말더듬이로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말더듬으로 인한 수모가 떠오르면 울기도 하고, 억울함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늘 말더듬이 자신의 삶을 빼앗았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더듬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도 같다고 하였다. 더 높은 지위로 승진을 열망하며 말더듬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 읽기, 시 낭송, 판소리 등을 연습하여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대중 앞에서 더듬지않고 말하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오히려 전문기

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많은 시간을 들여 말 연습을 하였지만 여전히 말더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말할 기회를 양보하기도 하고, 스스로 승진의 기회를 피하였던 굴곡이 심한 자신의 처지를 한스럽게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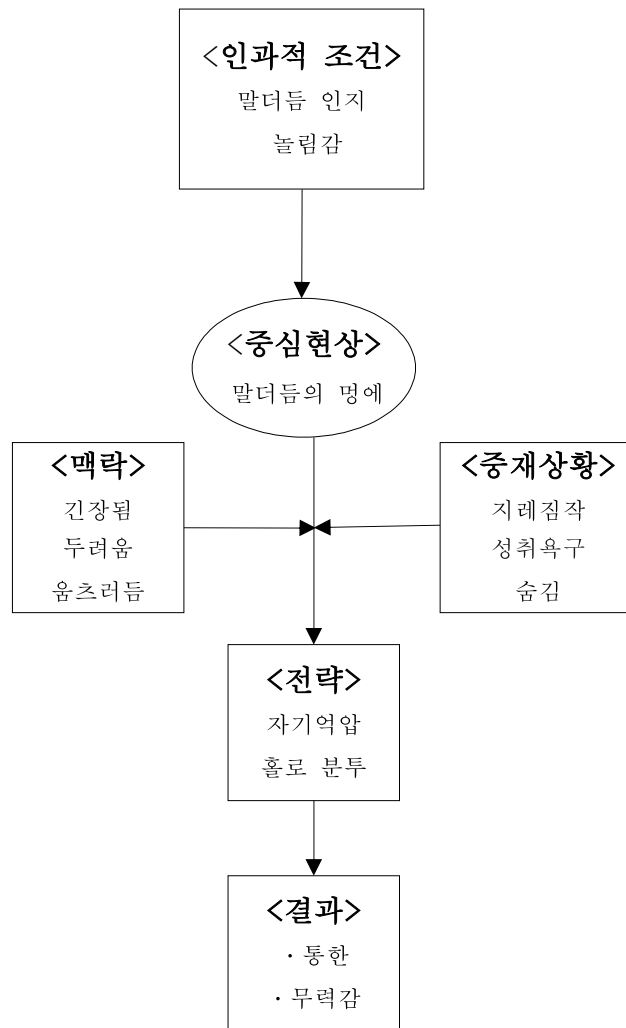
참여자 B는 어릴 적부터 말을 급하게 하였고, 말더듬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생도 말더듬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사업상 문제가 없지만, 자신은 말더듬 때문에 사업상 대화를 주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여 단체장과의 면담에서 조리 있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여 불편하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함으로 술로 답답함을 달래는 일이 빈번하였다. 성격이 활발하여 남들 앞에 나서 박수 받고 싶은 열망이 있으나, 말더듬으로 무시를 당할까봐 직책을 사양하거나 나서는 것을 포기하였고, 친구나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말더듬을 숨겼다. 말더듬으로 인한 괴로움이 커서 말더듬전문기관을 찾아보기도 하였으나, 말더듬이 고쳐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참여자 A는 말더듬으로 인한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기억은 할아버지로부터 혼란 경험과 시골에서 지적장애인으로 부터 놀림 받은 경험이라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말과 관련된 기관을 다녀봤지만 정작 말더듬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께서 말더듬으로 인해 질책을 받거나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하여 억울함이 늘 내재되어있다고 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말더듬이 예상되면 예전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긴장이 고조되며 말더듬이 더 심해진다고 하였다. 활동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말더듬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직장에서 발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승진의 기회를 거절하거나 자포자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자녀가 말더듬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겼지만, 자신은 치료는 받지 않았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소그룹 앞에서 성공적 발표 경험을 쌓기 위하여 친목카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현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는 말더듬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더듬을 보이지 않기 위해 짧게 이야기를 하는 자신이 밉다는 자책과 말더듬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I는 어릴 적 말더듬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혼이 났거나 질책을 받은 경험이 강하였고, 친구들과로부터 비웃음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였다.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말더듬 때문에 발표를 망쳐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학과를 선택할 때 발표의 기회가 적은 것을 염두에 두기도 하였으나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경험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직업상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고 사회를 맡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회피하고, 승진의 기회도 포기하게 되었다. 이는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기억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고, 멋있게 발표도 하고 싶은데 말막힘에 대한 예상을 하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위축감으로 기회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본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공개할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앓으면서 남편에게 말더듬의 문제를 드러내야 할 정도로 말더듬이 더 심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말을 갑자기 더듬게 되자, 자신과 같은 길을 갈까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으며, 부모님이 자신의 말더듬에 대하여 질책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었다. 남편 외에는 가족 그 누구에게도 말더듬에 대한 힘든 마음을 내색한 경험이 없었고, 남편에게 자신의 문제를 공개할 때도 창피함을 느꼈다. 말더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와 성공 욕구가 강한 편으로 스피치 학원을 다녀본 적은 있으나 말더듬 치료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작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받아 본 적은 없었다. 참여자 I는 말더듬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이 후회스럽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었다.

이와 같이 참여자 D, B, A 그리고 I 는 말더듬의 문제를 [자기억압] , [홀로 분투]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말더듬에 대하여 [통한] 과 [무력감] 이 남는 결과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통한형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4>와 같다.



<그림-4> ‘통한형’의 패러다임 모형

b. 체념형

참여자의 말더듬에 대한 [긴장] 정도가 약하고, [두려움] 이 크지 않으나 [움츠러듦] 이 강하면서, [지레짐작] 하여 미리 겁먹을 때가 많고 [성취욕] 이 강하지 않지만 [열린 마음] 을 거부하여 숨김이 강하면,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 에 대하여 [홀로 분투] 와 [자기억압] 전략으로 대처하여 말더듬에 대해 [체념] 이 남는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F, G, 그리고 H 이다. 참여자 F는 어릴 적 말더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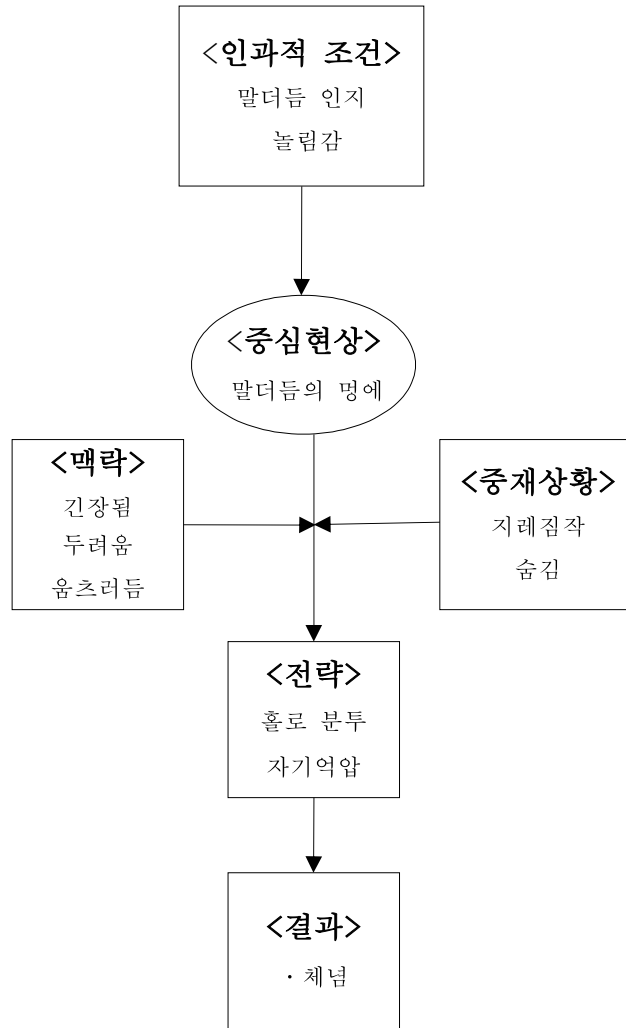
인하여 동네사람들로부터 책을 읽으라는 지적을 받았고, 성격이 소심한 편인데 말더듬을 숨기기 위하여 말수를 줄여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이 없는 조용한 아이로 취급 받았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조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말더듬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참여자들 중 가족력이 가장 뚜렷한 참여자 F는 자신의 형제도 말을 더듬었고, 자신의 두 자녀도 말더듬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자녀들이 말을 더듬는 원인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후 말더듬이 심해졌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다. 말이 막히면 주로 말의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자신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가 되어 시어머니와도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고 하였다. 특히 상대방과 긴 이야기를 할 때 말더듬에 대한 창피함이 더 예상되어 말수를 줄이고, 되도록 말을 짧게 끝내려고 하였다. 말더듬이 자신을 창피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말더듬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녀 두 명이 언어치료를 받고 있어 자신까지 말더듬 치료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말더듬에 둔감해져서 말더듬에 대하여 체념하고 산다고 하였다.

참여자 G는 중학교 때부터 말을 더듬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더듬이 심해지자, 부모님이 중학교 때 치료기관에 데려가 주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막힘이 심해지면 아예 말을 못하게 된 경우가 많고, 운송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점포를 다닐 때 마다 인사말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는 말 자체를 시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밀려든다고 하였다. 또한 배송지역의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자신의 말더듬이 소문날까봐 조바심을 내기도 하였다. 이전에도 같은 일을 하였는데 지금은 말더듬이 더 심해졌고, 성격이 까칠하거나 나이가 많은 상사 앞에서 움츠러듬이 더 심하다고 하였다. 부모님으로부터 말더듬에 대한 지적을 받은 편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더듬에 대해 비웃는 느낌을 종종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말더듬으로 인하여 사람을 피한 적도 있었고, 혼자 속으로 말 연습을 하거나 호흡을 가다듬어 보는 등 자신만의 방법을 시도 하였다. 적극적으로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한 경험은 없었다. 어릴 적 누군가에게 호흡을 조절하면 말더듬이 좋아진다는 정보를 듣고 혼자서 오랫동안 호흡을 조절했지만 말더듬이 좋아지지 않자, 연습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치료를 미루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H는 초등학교 발표시간이나 책읽기 시간에 말더듬으로 인하여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였다. 대학교를 중퇴한 이유도 말

더듬 때문이었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되도록 말더듬의 영향을 덜 받는 직업을 선택하여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금도 전화통화가 힘이 들어 장모의 생신축하 메시지를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로 대신하고,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을 때에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활동적인 성격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므로 이야기를 길게 하다보면 말더듬이 심해진다고 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말을 더듬었던 순간을 되새기면 왜 말을 그렇게 오래하고 더듬을 때까지 했을까 후회를 하게 되고, 차분히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감도 있었다. 군대에서도 탈출행동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 말이 막힐 때 주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거나, 말수를 줄인다고 하였다.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도움을 받았으나 여전히 말더듬이 심해서 3살짜리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막힌다고 하였다. 말더듬을 장애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의 상당부분을 팔아서라도 말더듬을 고치고 싶다고 하였으나 말더듬은 완치되기 힘들 것이라고 여겼다.

이와 같이 참여자 F, G 그리고 H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에 [홀로 분투]와 [자기억압] 과 같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말더듬에 대하여 [체념]의 결과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체념형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5>와 같다.



<그림-5> ‘체념형’의 패러다임 모형

c. 순응형

참여자의 말더듬에 대한 [긴장] 정도가 약하고, [두려움] 이 크지 않으며 [움츠러듬] 이 강하면서, [지레짐작] 정도가 약하고 [성취욕] 이 강하지는 않지만 [열린 마음] 을 갖으면,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에 대하여 [긍정적 추진] 과 [홀로 분투] 전략으로 대처하여 말더듬에 대해 [순응] 으로 받아들이지만 [체념] 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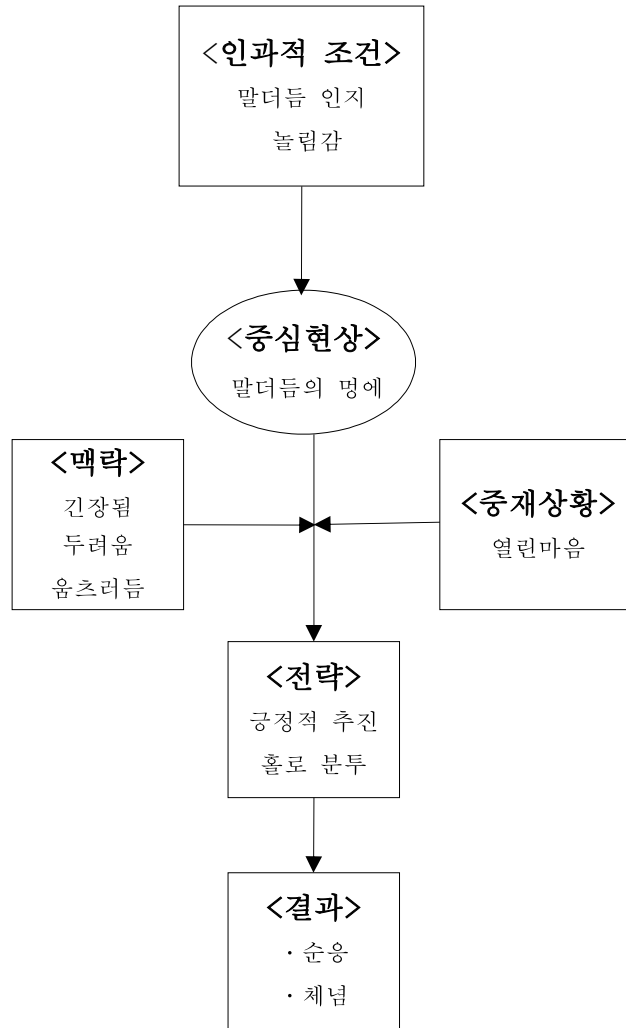
이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C, E, 그리고 J 이다. 참여자 C는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를 가장 약하게 느끼는 유형이다. 참여자 C는 주로 설명할 때 말이 막히기 때문에 종종 말의 순서를 바꾸어 말을 하다보면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헷갈리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남들에게 한심하거나 멍청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였고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더듬 때문에 손해를 봤거나, 말더듬으로 두려움이 예상되지는 않았다. 전문 치료기관을 통하여 말더듬의 중증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이제는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 문제를 떳떳하게 밝히고 설령 말을 더듬더라도 끝까지 말을 마쳤다. 아직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럽기는 하지만 말더듬이 인생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받아들였다.

참여자 E는 참여자 중 말더듬 중증도가 가장 심한 편이었다. 면담 시 말더듬이 매우 심하여 면담시간이 가장 길었고, 면담 중간에 말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릴 적 말더듬이 심하여 심부름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나 심부름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하급생반에 갔는데 선생님이 말더듬을 따라하여 웃음거리가 된 경험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에 이끌려 스피치 학원이나 말더듬 전문기관을 다닌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기관에 다닐 때는 말더듬의 문제가 호전되었다가 치료를 그만두면 말더듬의 문제가 재발되었지만, 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치료기관에서 치료사와 있을 때는 말을 조절 할 수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구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조절하여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였다. 실생활에서도 치료기관에서 배운 대로 말을 조절하고 싶지만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말더듬 장애를 인정하지만 말의 속도를 느리는 등 부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이 막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참여자 E는 이처럼 말더듬이 불편하지만 평생 안고 가야하는 친구처럼 생각하였다.

참여자 J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온통 말더듬 기억뿐이라고 하였다. 특정음소에서 막힘이 매우 심하고, 투쟁행동이 너무 심하여 이야기를 마치면 몇 미터 앞까지 진전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부터 말더듬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고, 부모님의 비웃음이 서운하여 펄펄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 때는 말더듬이 너무 심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두렵고, 택시를 잡으면 친구들이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대신 말해주거나, 물건을 살 때도 친구들이 대신 말을 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말더듬이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이며, 말의 순서를 바꾸어 말더듬을 모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J는 지인

들에게 말더듬에 대하여 은폐하지 않았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말 문제를 공개하였다. 심지어 말더듬 흉내를 내던 친구에게 그러다가 말더듬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말더듬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다. 군대에서도 자신의 말더듬을 미리 자기 공개하여 상사들의 배려와 위로를 받았다. 아버지가 말더듬이 심한 편이었으나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자랐고, 말더듬에 대하여 수용적인 가정의 분위기로 말더듬에 대하여 스스로 식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아직도 교회에서 대표기도가 두렵지만, 말더듬은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전처럼 말더듬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편안해졌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해 질 수 없다는 생각이 있으며 일정 부분은 체념이 있었다.

이와 같이 참여자 C, E, 그리고 J 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예】 에 [긍정적 추진] 과 [홀로 분투] 전략으로 대처하여 말더듬에 대해 [순응] 으로 받아들이지만, 말더듬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면 [체념] 이 남는다. 순응형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6>과 같다.



<그림-6> '순응형'의 패러다임 모형

E.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이 시간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변화 하거나 때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과정으로, 일련의 순차적 순서를 의미 한다 (Strauss & Corbin, 1998). 과정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구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건에 맞게 정렬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다음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어떻게 피드백 되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그 하위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여기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과정(process)에 대한 관심이다. 과정은 반드시 단계나 국면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작용·상호 작용의 패턴에서 또 그 자체와의 내적·외적 조건의 변화를 통한 관계에서의 상호적인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Schreiber & Stern, 2001).

과정의 첫 단계는 말더듬의 ‘발현기’였다.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느끼게 하는 <말더듬 인지>와 말더듬으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놀림감>의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주로 이 시기는 학령전기나 학령기인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단계는 말더듬의 ‘내재화기’이다.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말더듬의 발현기에서 겪었던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하였다. <두려움>, <긴장됨>, <움츠러듦>이라는 맥락에 의하여 더욱더 말더듬의 현상이 심화되고 말더듬의 핵심행동이 드러나든지, 상대방에게 말더듬을 들키지 않기 위해 주로 회피와 도피라는 <자기억압>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말더듬의 부수행동에 해당된다. 이에 말더듬을 들키지 않았다는 순간적인 안도감은 있지만, 말더듬에 대하여 실패한 자기 모습에 곧 후회하거나 체념하며 말더듬에 익숙해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학령기 이후 일생동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한형과 체념형은 이 순환과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전환기’이다. 말더듬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끈임없이 반복되는 말더듬의 내재화기에서 벗어날 수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말더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 추진>을 하여 말더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삶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까지 도달한 유형은 순응형의 참여자들뿐이었다. 말더듬의 발현기, 내재화기, 전환기의 시간적 과정으로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발현기

말더듬의 발현기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의 인과적 조건과 맥락과 관련이 깊다. 참여자들은 주로 학령기 이전 단계에서 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서는 말더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반응에 따라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부정적 감정과 주변지지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말더듬의 내재화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2. 내재화기

이 단계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의 중심현상과 말더듬에 대처하는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재상황과 관련이 깊다. 말더듬의 발현단계를 거치면 참여자들은 말더듬에 대처하면서 말더듬이 더 내재화되는 단계에 접어든다. 말을 더듬지 않고 싶지만, 통제력 상실로 인하여 말을 더듬게 되는데 이에 앞서 말을 더듬을 상황을 예상하게 된다. 또한 이전에 말더듬으로 인한 창피했던 기억과 감정들이 떠오르고, 되풀이 하게 될 실수로 창피함을 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게 되면 긴장이 더욱 고조된다. 이에 다시 말더듬이 심하게 되기도 하고, 말더듬을 피하기 위하여 내재화된 말더듬의 행동인 회피나 도피를 사용하게 된다. 말더듬을 들키지 않았다는 순간적 안도감을 갖게 되지만 곧 말더듬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또다시 말더듬을 직면하게 되면 동일한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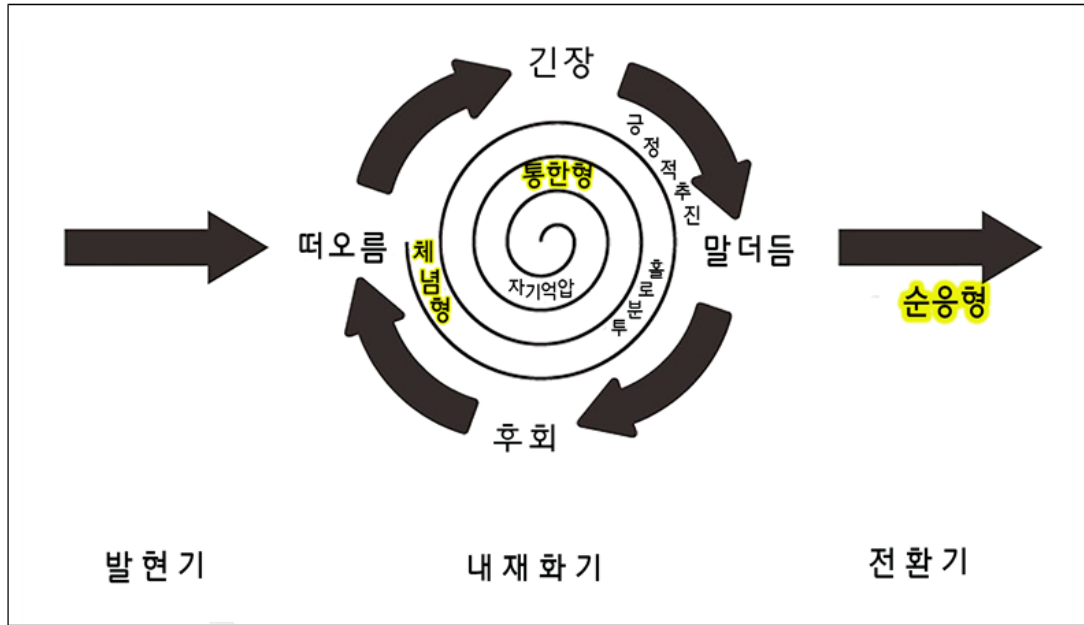
전환기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에 대한 전략과 결과와 관련이 있다. 말더듬의 내재화 단계에서 내재화된 말더듬의 순환과정은 참여자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속적으로 말더듬의 명에에 제압되어 살아갈지, 말더듬의 내재화의 순환고리를 끊고 보다 긍정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긍정적 추진 전략을 사용한 참여자들은 말더듬을 수용하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순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와는 다른 경험을 하는 참여자들은 주로 부정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다시 말더듬의 내재화과정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F. 실체이론 형성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와의 동행’ 이론 모형은 <그림-7>에 형상화하였다. 참여자들은 말더듬의 발현기를 거쳐 내재화기에 들어가게 된다.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떠오름으로 긴장이 발생된다. 그 긴장이 고조되면서 말더듬의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을 드러내게 되는데 핵심행동을 감추기 위해 부수행동인 회피를 선택하게 되면서 순간적인 안도감을 갖지만 곧 말더듬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전의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게 되고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순환적인 말더듬의 내재화기에 매여 있게 된다. 긴장이 고조될 때까지는 참여자들의 유형이 분류되지는 않는다.

참여자들은 말더듬의 내재화기에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주로 자기억압의 전략을 사용하는 통한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더듬이 내재화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에 대하여 무력감에 매이게 되어 내재화기의 순환고리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홀로 분투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체념형의 참여자들은 말더듬에 둔감해지고 치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아간다. 이들은 내재화의 순환고리에서 통한형보다는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말더듬에 대한 긍정적 추진 전략을 통하여 치료기제를 획득한 순응형의 참여자들은 말더듬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응의 삶으로 전환되어 내재화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에 말더듬의 경험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말더듬성인이 의사소통 시 말더듬에 대한 떠오름의 강도에 따라 긴장의 고조가 좌우되며, 긴장의 정도에 따라 말더듬의 중증도와 강도 또한 달라진다. 그리고 전략의 선택에 따라 말더듬성인의 삶의 유형도 달라진다. 참여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말더듬이라는 멩에와 부정적으로 동행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동행할 것인지 그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그림-7 참조>.



<그림-7>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와의 동행’ 이론 모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중심현상은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로 분석되었으며, 경험에 대한 과정과 유형이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핵심 범주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 명에와의 동행’에 대한 각 패러다임과 유형 및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와의 동행’의 의미

본 연구에서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핵심범주는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와의 동행’으로 나타났다. 말더듬은 주로 학령전기나 학령기에 발현되며,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우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말더듬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말더듬성인은 학령전기 때부터 말하기 경험을 사회적 처벌로 인식하기도 한다(Langevin, Packman, & Onslow, 2009). 말더듬이 만성적인 경우에 이런 경험은 장기간동안 지속된다(Craig, Blumgart, & Tran, 2009; Yaruss, 2010). 더욱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사회적 불안이나 사회적 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Craig, Blumgart, & Tran, 2011; Messenger, Onslow, Packman, & Menzies, 2004).

본 연구결과,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에 대한 인과적 조건으로는 말더듬 인지와 놀림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말더듬으로 인하여 친구와 선생님의 놀림 등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의사소통 중 말이 막히거나, 말이 안 나오는 경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더듬이 시작됨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남들과 다른 말더듬 행동 즉, 핵심행동과 부수행동으로 인하여 친구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된 경험을 토로하였다. 이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의해서도 밝혀진바 있다. 학령기 아동의 말더듬은 학교의 친구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며(Langevin & Hagler, 2004; Langevin, Kleitman, Packman, & Onslow, 2009), 말더듬의 결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다(Blood & Blood, 2004, 2007; Blood, Blood et al., 2011; Davis, Howell & Cooke, 2002;

Hugh-Jones & Smith, 1999; Langevin, 2015). 학령전기 아동들도 말더듬 때문에 사회적 처벌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치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아이가 말더듬으로 인하여 또래로부터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인식하였다(Langevin, Packman, & Onslow, 2008a, 2008b). 말더듬으로 인하여 주위로부터 놀림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Langevin 등(2009)에서 말더듬에 대한 또래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어릴 적 말더듬으로 인한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연구들(Hugh-Jones & Smith, 1999; Mooney & Smith, 1995)도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때 말을 더듬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부정적 감정들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말이 막힐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더듬으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 말실수에 대한 공포증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서도 확인되었다(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Craig & Tran, 2006; Daniels & Gabel, 2004; Tran et al., 2011; Yairi & Seery, 2011). 말더듬의 시점과 관련된 말더듬 경험에 대한 감정으로는 두려움, 근심, 불안, 답답함, 공포, 당황, 수치심, 굴욕, 분함 그리고 모욕감 등이 있다(Yairi & Seery, 2011). 그 중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감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다(Yairi & Seery, 2011). Plexico 등(2005)도 말더듬성인들이 이러한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자신의 말더듬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긴장감,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함께 움츠러듬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의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말더듬성인은 말을 더듬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주위사람들로부터 부적절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말더듬을 떠올리면 저절로 겁을 먹게 되는데, 이러한 움츠러듬의 하위범주로는 주변지지, 시선의식 그리고 성격성향이 해당되었다. Bricker-Katz 등(2013)은 말더듬성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역량, 정신 건강 상태 그리고 지능에 대한 오해를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진아(2001)는 말더듬성인은 타인으로부터 ‘모자라는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평가 받을 것을 고통스러워한다고 하였다. Bricker-Katz, Lincoln과 McCabe(2009)의 연구에서 말더듬성인은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말더듬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가볍게 보거나, 비웃는 느낌을 들게 하는 부정적 시선의식으로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주변지지도 맥락으로 작용하였는데, 특히 어릴 적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을 더듬는다고 지적 및 질책을 받아 참여자들로 하여금 말더듬에 대하여 움츠러들게 하였다. Klompas와 Ross(2004)에서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서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말더듬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움츠러듬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주변지지가 좋은 편인 경우도 있었다. 말더듬에 대해서 수용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거나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말더듬을 관리할 수 있었던 능력 중 첫 번째가 주변지지라고 밝힌 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Plexico et al., 2005).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격성향 때문에 말더듬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민혜(2015)에서도 말더듬성인들은 자신들의 급한성격이 행동과 말을 빠르게 하려는 특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더듬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더듬성인의 말더듬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이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에 대한 맥락적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말더듬으로 인한 삶의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은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였다. 이들은 말더듬으로 인하여 사회적 소통장애와 자신감 저하를 경험하였고 말더듬이 자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말더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비판적으로 반추하며 말더듬을 굴레로 여기고 말더듬으로 인하여 한뼨힘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말더듬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말더듬성인들은 일생동안 반복되는 말더듬이라는 멩에의 무게를 버거워하였으며 멩에를 내려놓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막상 말더듬에 직면하였을 때 이전의 반복된 경험에서부터 온 감정과 인식이 떠오르게 되고 말더듬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게 되는 말더듬의 내재화 과정을 순환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말더듬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말더듬성인들이 불안정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과업 수행력 수준이 낮았다 (Michelle & Eleanor, 2004). Bricker-Katz 등(2013)도 말더듬성인들은 직장에서 새로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제약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Langevin 등(2009)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주위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자신감 하락, 우울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결과에 장기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멩에’의 상위범주인 자신감 하락에 대한 결

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신감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불안, 초조, 당황 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말더듬성인의 불안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Iverach 등(2009)은 말더듬성인이 경험하는 불안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 이상이며, 말과 관련된 불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Kraaimaat 등(2002)은 말더듬성인 집단이 정상성인 집단에 비해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더듬성인 집단 내에서도 심한 불안을 나타내는 하위 그룹도 확인하였다. 김주연·이은주·황민아(2008)도 대인관계에서 말더듬성인과 정상성인이 경험하는 사회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말더듬성인이 정상성인보다 사회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Iverach와 Rapee(2014)도 말더듬성인의 사회불안 장애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말더듬성인에게 자신감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불안이 말더듬성인의 평가와 치료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말더듬성인은 말더듬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말더듬을 피하게 되고, 말을 더듬는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Plexico et al., 2009a). 김민혜(2015)는 말더듬성인은 주로 청자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으로 이는 오랜 시간 말더듬으로 체험한 기억을 바탕으로 예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더듬의 경험에 대하여 전략을 선택하는데 관여하는 중재상황 중 지레짐작과 관련이 있다. 참여자들은 말을 하기도 전에 말더듬과 말이 막힐것이 예견되었고, 이전의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이 말더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열린 마음이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 또는 의견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상태의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력이라고 할 수 있다. Groomes와 Leahy(2002)는 말더듬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할 가능성이 더 높고, 말더듬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자기수용을 촉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말더듬성인에게 있어서 열린 마음은 자신이 말더듬이라고 공개하는 것이다. Lee와 Manning(2010)은 말더듬성인의 자기 공개는 말더듬을 인정하는 행동으로서, 타인에게 말더듬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말더듬성인 본인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말더듬성인은 청자의 반응에 예민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청자의 반응을 기대한다면 자기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 공

개는 말더듬 중재 시 권장되는 방법으로서 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Byrd, Croft, Gkalitsiou & Hampton, 2017; Collins & Blood, 1990; Lee & Manning, 2010). Collins와 Blood(1990)는 자기 공개는 지능, 성격, 외모의 관점에서 말더듬성인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말더듬 중증도가 심한 사람이 자기 공개를 사용하는 것이 말더듬 중증도가 약한 사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Byrd 등(2017)은 자기 공개 방법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청자들은 말더듬에 대하여 자기 공개를 하는 사람을 더 친숙하고, 외향적이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순응형의 참여자들도 말더듬에 대해 자기 공개를 하였으며, 긍정적인 추진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언어재활사는 통한형과 체념형의 참여자들에게 자기 공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청자에게서 더 긍정적인 인식과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개 방식에 대하여도 권유할 수 있겠다(Byrd 등, 2017).

본 연구에서 전문적인 치료나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참여자도 자기 공개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말더듬에 대한 수용적인 가정 분위기와 친구의 도움 등 긍정적인 주변 지지에 영향을 받아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더듬성인이 말더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긍정적인 주변지지를 통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더듬 성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말더듬의 명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 사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

Manning(2010)은 말더듬 치료에 대한 긍정적 진전 지표로 회피감소, 당당한 말과 모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증가, 개방적 의사결정의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말더듬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명에’에 대한 긍정적추진 전략과 관련이 있다. 통한형과 체념형의 참여자들은 자기억압과 홀로분투라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Manning(2010)이 제시한 긍정적인 진전 지표와는 상반되는부정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말과 상황을 회피하고, 말더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습득하거나 말더듬을 숨기는 폐쇄적 의사결정을 선택하였다. 황민지(2011)에서도 말더듬성인이 오랜 시간 말더듬을 경험하면서 말더듬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말더듬에 대한 전문치료기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통한형과 순응형의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일치하였다. 또한 말더듬 관련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 말더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보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이 말더듬에 대한 회피와 포기라는 ‘자기억압’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말더듬에 대한 통제력상실을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Cooper, 1968; Manning, 2001; Perkins, 1990). 자신이 말더듬을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해석한다면, 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말더듬과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말더듬성인이 사용하는 대처 전략으로 회피가 확인되었다(Crichton-Smith, 2002; Daniels 등, 2006). 그러나 Plexico 등(2009a)은 말더듬성인에게 말더듬에 대한 회피 방식보다는 접근 방식을 권유하면서 청자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을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

B.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와의 동행’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의 중심현상인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의 결과 양상에 따라 삶의 경험의 유형은 통한형, 체념형, 순응형으로 분류되었다. 통한형은 말더듬 발현기를 거쳐 말더듬 내재화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 유형은 말더듬의 멍에를 메고 말더듬의 내재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유형으로서, 말더듬에서 도피하고자 자기억압 전략과 자신만의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홀로분투 전략을 사용하지만 결국 말더듬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통한과 무력감을 느꼈다.

통한형은 반복되는 말더듬의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자신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존재로 느꼈을 때 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Corcoran과 Stewart(1998)는 말더듬성인들의 경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중심 주제를 고통이라고 하였으며, 고통의 종류는 수치심, 공포, 회피,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무력감 등 네 가지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의 중심현상과 유사한 결과로 보여진다. Ellis와 Hirsch(2000)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한형의 참여자들은 말더듬이 삶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써 굴레나 걸림돌로 여겼다. 성취욕구가 강하여 말더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

지 못하여 효과적인 치료기제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매 순간 말더듬에 패배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Plexico 등(2005)에서 말더듬성인이 말더듬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청자의 부정적 반응, 부정적 감정 그리고 회피였음을 확인하였다.

체념형은 통한형과 같이 말더듬의 내재화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전환기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세 유형 중 가장 소극적인 유형으로, 자신이 처한 말더듬의 명예를 버겁게 느끼지만,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지는 못하였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말더듬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기보다는 말더듬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다녔다. Klompas와 Ross(2004)도 말더듬성인들이 웅변이나 드라마에 참여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홀로 분투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체념형의 참여자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자기억압의 대처 전략도 사용하였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말더듬에 대하여 둔감해지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말더듬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 여겨, 치료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체념의 결과를 보였다. 말더듬성인이 오랜 시간 동안 겪은 말더듬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하여 체념을 경험한다(Corcoran & Stewart, 1998)는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한다.

순응형은 말더듬의 내재화기에 머물러있지 않고, 말더듬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동행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환 단계로 나아갔다. 이들은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내재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추진 전략을 사용하여 치료기제를 획득하게 되었다. 전문치료기관의 체계적인 치료를 통하여 말더듬의 중증도가 낮아지거나,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Plexico 등(2009b)도 성공적으로 말더듬에 대처한 참여자들은 말더듬을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였고, 이에 말더듬에 의한 스트레스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Wright(198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Plexico et al., 2009b에서 재인용). 한편 Plexico 등(2009b)은 말더듬에 대한 자기수용은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크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 언어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치료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Franken, Boves, Peters, & Webster, 1992; Huinck & Peters, 2004). 본 연구에서도 순응형의 참여자들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치료경험이 많았다. 이는 치료경험이 말더듬에 대한 자기수용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말더듬의 장기적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계 및 임상에서 심도 있는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McCubbin과 Patterson(1983)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에 대한 대처과정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간 상호작용과정에

따라 적응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말더듬성인이 겪는 어려움은 유형과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말더듬이 발현되는 순간부터 말더듬이 내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발생하는 두려움이나 긴장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도와줄 실제적인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C. 임상적 의의

본 연구는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전인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고, 과정과 유형을 밝히므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체이론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유형은 통한형, 체념형, 순응형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통한형의 참여자들은 성취욕구가 강하며 말더듬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였고, 체념형은 말더듬의 멍에를 벗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접고, 말더듬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순응형은 말더듬의 멍에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략으로 대처하여 말더듬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말더듬을 완벽하게 고치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말더듬에 대한 체념도 일부 남기도 하였다. 이런 유형을 바탕으로 말더듬성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적극적이고 성취욕구가 강하여 말더듬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지만 말더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자기억압의 전략을 추구하는 참여자들은 통한형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통한형의 참여자들은 언어치료에 대한 불신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언어치료실을 찾지 않고, 자기억압이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말더듬의 증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취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무력감이나 자책이 남았다. 따라서 언어재활사들은 통한형의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말더듬 치료의 성공사례 및 언어치료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여 언어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말더듬성인의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겠다. 또한 통한형의 참여자들은 말더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로 말더듬 상황을 회피하는 자기억압이라는 부정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회피가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또는 지

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Davey, Burgess, & Rashes, 1995; Plexico et al., 2009a; Starkweather, 1987; Van Riper, 1973). 말더듬성인에게 회피전략 보다는 접근전략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Dukes Holland & Holahan, 2003), 언어재활사는 자기 공개의 유용성을 제공하고, 말더듬을 공개하기 유용한 자조모임 등을 권유해야 한다(Trichon & Tetnowski, 2011).

둘째, 말더듬에 대하여 지레 겁을 먹고 대처가 소극적인 참여자들은 체념형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체념형의 참여자들도 통한형의 참여자와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언어치료를 받는 적극적 추진 전략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소극적 전략으로 주로 홀로 분투하였고 때로는 회피와 포기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통한형의 참여자만큼은 성취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무력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보다 말더듬에 대한 지레짐작의 정도가 크고, 말더듬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체념이 빠른 편이었다. 이에 언어재활사들은 체념형의 참여자들에게 말더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식에 대한 이점을 제공하고, 말더듬 치료에서는 참여자들이 실제로 의지하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자의 역할과 적극적 지지를 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말더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말더듬을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는 참여자들은 순응형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순응형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부모나 친구 등 주변지지가 양호하여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보다는 말더듬을 공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말더듬에 대한 대처 방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말더듬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성공적인 적응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DeLoach와 Greer(1981)는 적응이란 자기 수용, 책임 있는 행동, 적절한 사회 기술 및 성공적인 대처 전략의 사용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이에 언어재활사는 순응형의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더욱 지지해 주고, 말더듬과 말더듬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완벽한 치료를 기대하지 못하는 체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을 바탕으로 ‘말더듬의 무의식적 점유: 멍에’의 말더듬 발현기, 말더듬 내재화기, 전환기에서 요구되는 언어치료적 중재는 각각 달라야 할 것이다.

먼저, 말더듬의 발현기에는 말더듬아동의 주양육자가 말더듬과 말더듬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말더듬의 조기 중재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므로, 가정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전략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말더듬의 내재화기에는 참여자들이 말더듬에 직면했을 때 이전의 실패한 경험이 떠오르면 긴장감이 고조되고, 말더듬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선택한 회피나 도피로 순간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실패로 인한 좌절이 삶의 질을 낮추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Plexico 등(2009a)에서 말더듬성인들의 대처 반응 중 회피방식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의 대처주기에서도 말더듬의 내재화 과정이 확인되었다.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청자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게 되어 회피를 선택하여 순간적인 안도감을 느끼지만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였다(Plexico 등, 2009a). 따라서 내재화기에 머물러 있는 참여자들에게 말더듬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말더듬에 대한 인지기반의 재구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 전환기는 삶의 유형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처전략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말더듬에 대한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의 역할과 상담자 그리고 옹호자(advocator)의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더듬성인의 삶의 유형과 과정에 근거하여 적합한 언어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체이론을 개발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말더듬성인의 언어치료 및 상담 실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D.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상에서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은 ‘말더듬의 무의시적 점유: 명에’를 통해 자신의 말더듬에 대하여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말더듬성인을 치료하는 언어재활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과 과정에 따른 언어치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언어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더듬성인을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언어재활사는 말더듬성인의 말더듬에 대한 중재상황과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언어치료에 임하는 것이 말더듬성인의 내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말더듬성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유형과 과정에 따라 실제

적으로 적용 가능한 언어치료 중재 및 언어치료적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주로 말더듬성인 남성으로 편중되어있으며 청소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말더듬의 삶의 경험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주로 언어치료실을 통하여 연결된 대상자들로 편중되어있으므로 언어치료실을 찾지 않는 말더듬 성인들이나 성공적으로 말더듬을 극복한 사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말더듬 경험에 대한 분석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말더듬 치료나 언어치료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언어재활사의 말더듬 그리고 말더듬성인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소영·박상진(2017).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체감안전에 대한 근거이론의 접근. 『한국경찰학회보』, 62, 3-37.
- 고영옥·권도하(2010). 말더듬 심도에 따른 불안 및 태도 특성. 『언어치료연구』, 19(1), 99-118.
- 김미영(2001).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 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혜(2015). 말더듬 자기 공개에 대한 말더듬성인의 인식.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수진·신지영(2007). 『조음음운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진숙·이혁구·이근무(2012). 중산층에서 탈락한 개인들의 경험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 재진입 시도와 실패를 경험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195-230.
- 김주연(2008).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정도 말더듬 지각 정도 사회불안 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형숙(2007). 근거이론을 이용한 ADHD 아동양육경험. 『가족과 문화』, 19(4), 193-222.
- 성진아(2001). 말더듬성인에 대한 듣는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송미승(2001). 이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신경림(2001). 질적연구 방법의 이론.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동계연수 자료, 5-22.
- 신경림·조명옥·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문자(2005). 유창성장애 성인의 치료. 『제22회 전문요원교육: 말더듬 성인의 평가 및 치료 워크숍』, 대구: 한국언어청능치료전문가협회.
- 신문자·최소영(2012). 언어치료사의 말더듬아동 치료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7(2), 201-218.
- 심현섭(2007). 성인 말더듬 진단 및 평가. 『제 10회 세계 말더듬의 날』, 서울: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 심현섭·신문자·이은주(2010).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Ⅱ』,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희승(2003).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전희정(2015). 성인용 전반적 말더듬 경험 평가(OASES™)의 국내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타당도와 신뢰도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24(1), 145-155.

- 조성남 · 이현주 · 주영주 · 김나영(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차혜경(2008).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끝없는 긴장의 재구성. 박사학위 청구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종혁(2011).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 한승주(2010).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 학보』, 44(4), 29-58.
- 황민지(2011). 20대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 청구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최귀순(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4(1), 82-90.
- Ambrose, N., & Yairi, E. (1994). The development of awareness of stuttering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9(4), 229-245.
- Anderson, T. K., & Felsenfeld, S. (2003). A thematic analysis of late recovery from stuttering.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2(2), 243-253.
- Beilby, J. (2014). Psychosocial impact of living with a stuttering disorder: Knowing is not enough.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35(2), 132-143.
- Bennett, E. M. (2006). *Working with people who stutter: a lifespan approach*.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Berg, D. N., & Smith, K. K. (1988). *The self in social inquiry: Researching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Bleek, B., Reuter, M., Yaruss, J. S., Cook, S., Faber, J., & Montag, C. (2012).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stutter and the impact of stuttering on everyday life.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7(4), 325-333.
- Blood, G. W., & Blood, I. M. (2004). Bullying in adolescents who stutte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self-esteem. *Contemporary Issues in Communication Science and Disorders*, 31, 69 - 79.
- Blood, G. W., & Blood, I. M. (2007). Preliminary study of self-reported experience of physical aggression and bullying of boys who stutter: Relation to increased anxie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04, 1060 - 1066.
- Blood, G. W., Blood, I. M., Tramontana, G. M., Sylvia, A. J., Boyle, M. P., & Motzko, G. R. (2011). Self-reported experience of bullying of students who stutter: 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life orientation, and self-esteem.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13, 335 - 364.

- Bloodstein, O. (1960). The development of stuttering Changes in nine basic featur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25*, 219-237.
- Bloodstein, O. (1987). *A handbook of stuttering* (4th ed.). Chicago: National Easter Seal Society.
- Bloodstein, O., & Bernstein Ratner, N. (2008). *A handbook of stuttering* (6th ed.). Thomson Delmar Learning. New York: Thomson, Delmar Learning.
- Bluemel, C. (1932). Primary and secondary stammering. *Quarterly Journal of Speech, 18*(2), 187-200.
- Bluemel, C. S. (1957). *The riddle of stuttering*. Danville, IL: Interstate.
- Blumer, B.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oyle, M. P., & Blood, G. W. (2015). Stigma and stuttering: conceptualizations, applications, and coping. In K. O. St. Louis (Ed.), *Stuttering meets stereotype, stigma, and discrimination: an overview of attitude research*. Morgantown, WV: West Virginia University Press.
- Bray, M., Kehle, T., Lawless, K., & Theodore, L.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to stuttering. *American Journal of Speech - Language Pathology, 12*(4), 425-431.
- Bricker-Katz, G., Lincoln, M., & Cumming, S. (2013). Stuttering and work lif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8*(4), 342-355.
- Bricker-Katz, G., Lincoln, M., & McCabe, P. (2009). A life-time of stuttering: How emotional reactions to stuttering impact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older peopl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1*, 1742-1752.
- Byrd, C. T., Croft, R., Gkalitsiou, Z., & Hampton, E. (2017). Clinical utility of self-disclosure for adults who stutter: Apologetic versus informative statement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54*(1), 1-13.
- Cheek, J., Onslow, M., & Cream, A. (2004). Beyond the divide: Comparing and contrast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pproaches. *Advances in Speech Language Pathology, 6*(3), 147-152.
- Chenitz, C., & Swanson, J. (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Choi, S. Y., Shin, M. J., & Song, M. S. (2016). A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 Parenting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ho Stutter,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1(4), 719-734.
- Collins, C. R., & Blood, G. W. (1990). Acknowledgment and severity of stuttering as factors influencing nonstutterers' perceptions of stutter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5(1), 75-81.
- Conture, E. G. (1990). *Stutter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onture, E. G. (2001). *Stuttering: Its nature, diagnosis, and treatment*. Boston, MA: Allyn & Bacon.
- Corcoran, J. A., & Stewart, M. (1998). Stories of stuttering: A qualitative analysis of interview narrative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3(4), 247-264.
- Cooper, E. B. (1968). A therapy process for the adult stutterer.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3(3), 246-260.
- Craig, A., & Tran, Y. (2006). Chronic and social anxiety in people who stutter.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2, 63-68.
- Craig, A., Blumgart, E., & Tran, Y. (2009). The impact of stuttering on the quality of life in adults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4(2), 61-71.
- Craig, A., Blumgart, E., & Tran, Y. (2011). Resilience and stuttering: Factors that protect people from the adversity of chronic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6), 1485-1496.
- Craig, A. R., & Calver, P. (1991). Following up on treated stutterers: Studies perceptions of fluency and job statu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2), 279-284.
- Cream, A., Onslow, M., Packman, A., & Llewellyn, G. (2003). Protection from harm: The experience of adults after therapy with prolonged-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8, 379-395.
- Creswe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s: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 CA: Sage.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richton-Smith, I. (2002). Communicating in the real world: Accounts from people who stamm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4), 333-352.
- Cutcliffe, J. R. (2000). Methodological issues in grounded theor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6), 1476-1484.

- Davis, S., Howell, P., & Cooke, F. (2002). Socio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who stutter and their non-stuttering classmat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939-947.
- Daniels, G. E., & Gabel, R. M. (2004). The impact of stuttering on identity construction. *Top Language Disorders, 24*, 200-215.
- Daniels, D. E., Hagstrom, F., & Gabel, R. M. (2006). A qualitative study of how African American men who stutter attribute meaning to identity and life choice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1(3)*, 200-215.
- Davey, G. C. L., Burgess, I., & Rashes, R. (1995). Coping strategies and phobia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s, phobias and methods of coping with stressor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423-434.
- Davis, S., Howell, P., & Cooke, F. (2002). Socio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who stutter and their non-stuttering classmat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7)*, 939-947.
- DeLoach, C., & Greer, B. G. (1981). *Adjustment to severe physical disability: A metamorphosis*. New York: McGraw-Hill.
- DeNil, L., & Brutten, G. (1991). Speech-associated attitudes of stuttering and normally fluent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0-66.
- Dukes Holland, K., & Holahan, C. K. (2003).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to positive adaptation to breast cancer. *Psychology and Health, 18(1)*, 15-29.
- Ellis, J. B., & Hirsch, J. K. (2000). Reasons for living in parents of developmental delayed children.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1*, 323-327.
- Emerick, L. (1988). Counseling adults who stutter: A cognitive approach.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Thieme Medical Publishers), *9(3)*, 257-267.
- Ezrati-Vinacour, R., & Levin, I.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tutter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2)*, 135-148.
- Ezrati-Vinacour, R., Platzky, R., & Yairi, E. (2001). The young child's awareness of stuttering-like disfluenc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2)*, 368-380.
- Finn, P. (1996). Establishing the validity of recovery from stuttering without formal treat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9(6)*, 1171-1181.
- Finn, P., & Felsenfeld, S. (2004). Recovery from stuttering: The contributions of the

-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Advances in Speech-Language Pathology*, 6, 159-166.
- Finn, P., Howard, R., & Kubala, R. (2005). Unassisted recovery from stuttering: Self-perceptions of current speech behavior, attitudes, and feeling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0(4), 281-305.
- Folkman, S., & Lazarus, R. S. (1990). Coping and emotion. In N. L. Stein, B. Leventhal, & T. Trabasso (Eds.),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approaches to emotion* (pp. 313 - 33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ranken, C. M., Boves, L., Peter, H. F. M., & Webster, R. L. (1992).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before and after fluency shaping therap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7(4), 223-241.
- Gordberg, S. A. (1995). *Behavior cognitive stuttering therapy*. California: Intelligroup.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Glesne, C., & Peshkin, A. (1992).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p. 104). White Plains, NY: Longman.
- Gregory, H. H. (1995). Analysis and commentary.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 26(2), 196-200.
- Groomes, D. A. G., & Leahy, M. J. (2002).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ress appraisal process, coping disposition, and level of acceptance of disabilit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6(1), 14-23.
- Guitar, B. (2013).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Hayhow, R., Cray, A. M., & Enderby, P. (2002). Stammering and therapy views of people who stamm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1), 1-17.
- Hayhow, R., & Stewart, T. (2006).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to stutt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41, 475-493.
- Hearne, A., Packman, A., Onslow, M., & Quine, S. (2008). Stuttering and its treatment in adolescence: The perceptions of people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3(2), 81-98.
- Huber, A., Packman, A., Quine, S., Onslow, M., & Simpson, J. (2004). Improving our clinical Interventions for stuttering: Can evidence from qualitative research contribute? *Advances in Speech Language Pathology*, 6, 174-181.

- Hugh-Jones, S., & Smith, P. K. (1999). Self-reports of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bullying on children who stammer.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2), 141-158.
- Huinck, W. J., & Peters, H. F. M. (2004). Effect of speech therapy on stuttering: Evaluating three therapy programs. In *Paper presented to the IALP Congress Brisbane*.
- Iverach, L., O'Brian, S., Jones, M., Block, S., Lincoln, M., Harrison, E., Hewat, S., Menzies, R. G., Packman, A., & Onslow M. (2009). Prevalence of anxiety disorders among adults seeking speech therapy for stutter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7), 928-934.
- Iverach, L., & Rapee, R. M. (2014). Social anxiety disorder and stuttering: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0(2), 69-82.
- Janesick, G., & Peshkin, A. (1992). Subjectiv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 M. D. Lecompte, W. L. Millroy, & J. Preissle (Ed.),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p. 681-725). San Diego: Academic Press.
- Johnson, W. (1958). The six men and the stuttering. In J. Eisenson (Ed.), *Stuttering*(pp. xi-xxiv). New York: Harper & Brothers.
- Klein, J. F., & Hood, S. B. (2004). The impact of stuttering on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4), 255-273.
- Klompas, M., & Ross, E. (2004). Life experiences of people who stutter, and the perceived impact of stuttering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4), 275-305.
- Kraaimaat F. K., Vanryckeghem, M., & Dam-Baggen, R. V. (2002) Stuttering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4), 319-331.
- Langevin, M. (2015). Bullying experienced by youth who stutter: The problem and potential intervention strategies Stuttering meets stereotype, stigma, and discrimination. *An overview of attitude research*, 71-90.
- Langevin, M., Packman, A., & Onslow, M. (2008a). The impact of stuttering on preschoolers and parents I: Quantitative finding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Langevin, M., Packman, A., & Onslow, M. (2008b). The impact of stuttering on preschoolers and parents II: Qualitative finding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Langevin, M., Packman, A., & Onslow, M. (2009). Peer responses to stuttering in the preschool

- setting.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8(3), 264-276.
- Lee, K., & Manning, W. H. (2010). Listener responses according to stuttering self-acknowledgment and modificati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5(2), 110-122.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indsay, A., & Langevin, M. (2017). Psychological counseling as an adjunct to stuttering treatment: Clie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52(1), 1-12.
- Mahr, G. C., & Torosian, T. (1999). Anxiety and social phobia in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4(2), 119-126.
- Manning, W. H. (1977). In pursuit of fluenc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1), 53-56.
- Manning, W. H. (2001).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2nd ed.). Vancouver: Singular Thompson Learning.
- Manning, W. H. (2010).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3rd ed.). Clifton Park, NY: Delmar, Cengage Learning.
- Manning, W., & Shrum, W. (1973). The concept of control in stuttering therapy: A reappraisal. *Division for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Bulletin*, 9(1), 32-34.
- McAllister, J., Collier, J., & Shepstone, L. (2012). The impact of adolescent stuttering on educational and employment outcomes: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stud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7(2), 106-121.
- McCubbin, H. I., & Pall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and J. 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7-38). New York: The Hayworth Press, Inc.
- Menzies, R. G., Onslow, M., Packman, A., & O'Brian, S. (2009).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adults who stutter: A tutorial for speech-language pathologist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4(3), 187-200.
- Messenger, M., Onslow, M., Packman, A., & Menzies, R. (2004). Social anxiety in stuttering: Measuring negative social expectancie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3), 201-212.
- Michelle, K., & Eleanor, R. (2004). Life experience of people who stutter, and the perceived impact of stuttering on quality of life: personal accounts of South African individual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4), 275-305.
- Milliken, P. J., & Schreiber, R. S. (2000). Can you "do" grounded theory without

- symbolic interactionism? In R. S. Schreiber & P. N. Stern (Eds.),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pp. 177-190).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ooney, S., & Smith, P. K. (1995). Bullying and the child who stammers.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 24-27.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s.). London: Sage.
- Munhall, P. (2001).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s* (3rd ed.). Coneticut: Appleton-Century-Crofts.
- Pattern, M., & Westby, C. (1992). Ethnography and research: A qualitative view.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2(3), 1-14.
- Plexico, L. W., Manning, W. H., & Levitt, H. (2009a). Coping responses by adults who stutter. Part I. Protecting the self and oth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4(2), 87-107.
- Plexico, L. W., Manning, W. H., & Levitt, H. (2009b). Coping responses by adults who stutter. Part II. Approaching the problem and achieving agenc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4(2), 108-126.
- Plexico, L. W., Manning, W. H., & DiLollo, A. (2005). A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successful stuttering management.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0(1), 1-22.
- Plexico, L. W., Manning, W. H., & DiLollo, A. (2010). Client perception of effective and ineffective therapeutic alliances during treatment for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5(4), 333-354.
- Quesal, R. W. (1989). Stuttering research: have we forgotten the stutter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4(3), 153-164.
- Reason, P. (1988). Introduction. In P. Reason (Ed.), *Human inquiry in action: Developments in new paradigm research* (p. 12). Newbury Park, CA: Sage.
- Rubin, D., Wetzler, S., & Nebes, R. (1986). Autobiographical memory across the adult lifespan. In D.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pp. 202-22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New York: Springer.
- Sheehan, J. (1970). *Stuttering: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Smith, A. (1999). Stuttering: A unified approach to a multifactorial, dynamic disorder. In N. Bernstein Ratner & E. Charles Healey (Eds.), *Stuttering research and practice*

- Bridging the gap* (pp. 27-4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mith, A., & Weber, C. (2016). Childhood stuttering: Where are we and where are we going?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37*(4), 291-297.
- Stewart, T., & Richardson, G. (2004). A qualitative study of therapeutic effect from a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2), 95-108.
- Stern, P. N.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12*(1), 20-23.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tarkweather, C. W. (1987). *Fluency and stutte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etnowski, J. A., & Damico, J. S. (2001). A demonstration of the advantages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in stuttering resear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6*(1), 17-42.
- Tran, Y., Blumgart, E., & Craig, A. (2011). Subjective distress associated with chronic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6*(1), 17-26.
- Trichon, M., & Tetnowski, J. (2011). Self-help conferences for people who stutter: A qual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6*(4), 290-295.
- Van Borsel, J., Brepoels, M., & De Coene, J. (2011). Stuttering, attractive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s: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6*(1), 41-50.
- Van Riper, C. (1937). The preparatory set in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Disorders, 2*, 149-154.
- Van Riper, C. (1954). *Speech correction: Principles and methods* (3rd ed.). New York: Prentice-Hall.
- Van Riper, C. (1973). *The treatment of stutter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Van Riper, C. (1982). *The nature of stuttering* (2nd ed.). NJ: Prentice Hall.
- Wright, B. A. (1983). *Physical disability: A psychosocial approach*.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Yairi, E., & Ambrose, N. G. (1999). Early childhood stuttering I: Persistency and recovery rat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2*(5), 1097-1112.
- Yairi, E., Ambrose, N. G., & Niermann, R. (1993). The early months of stuttering: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6*(3), 521-528.

- Yairi, E., & Seery, C. H. (2011). *Stuttering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 (2nd ed.). Boston: Pearson.
- Yaruss, J. S. (1998). Describing the consequences of disorders: Stuttering an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2), 249-257.
- Yaruss, J. S. (2010). Assessing quality of life in stuttering treatment outcomes resear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5*(3), 190-202.
- Yaruss, J. S., & Quesal, R. W. (2004). Stuttering an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An update.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7*(1), 35-52.
- Yaruss, J. S., & Quesal, R. W. (2006).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Documenting multiple outcomes in stuttering treatment.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1*(2), 90-115.
- Yaruss, J. S., Quesal, R. W., & Murphy, B. (2002). National Stuttering Association members' opinions about stuttering treatment.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3), 227-242.

<부록-1> 증례 기록지

개인정보

연령대: 세

성별: 남() 여()

말더듬 이외의 다른 조음, 언어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적어주십시오.

말더듬과 위에 작성한 조음, 언어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심리 등)?

(예 / 아니오)

있으시다면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말더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_____세 경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기간은? _____

